

2014

Nam June Paik Art Center
Education Programs

School for the
Paperless Society

백남준아트센터
교육 프로그램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학교

2

4

0

1

2014

백남준아트센터
교육 프로그램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학교

Nam June Paik Art Center
Education Programs

School for the
Paperless Society

**2014 Nam June Paik Art Center Education Programs
School for the Paperless Society**

Education Program Curator	Goo, Jeonghwa, Yujean Rhee, Sohyun Ahn
Educator	Mihyun Lee, Chaeyoung Lee, Seohyun Kim
Curatorial Support	Kyunghwa Ahn, Sooyoung Lee, Chaeyoung Lee
Archivist	Sang Ae Park
Technician	Kijun Lee
Publicity	Heeseung Choi
Design	Jiyoung Lee
Docent	Eunju Park
Educator Assistant	Seunghui Lee, Bora Kim
Intern	Choonyoung Lee
Administration	Younghyui Park, Eunkyung Seo, Choungsun Kim, Moonkook Chon, Jihyun Bae, Suckju Lee, Inho Park, Jonghee Lee, Jeongsuk Seol, Yonghak Choi, Sooyoung Chun
Facility	Jaeryong Lee, Jaegeun Kwak, Sangkyu Kim, Jongsun Choi
Security	Sangheun Han, Daeyoung Park, Giung Lee, Seonyeol Jung
Reception	Eunji Gil, Dahee Jeong, Seulki Choi
Janitor	Oyeol Kwon, Changsun Kang, Gwangsun Wie, Jeongyeo Park
Photograph	No-eon Park, Nam June Paik Art Center

**2014 백남준아트센터 교육 프로그램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학교**

프로그램 기획	구정화, 이유진, 안소현
에듀케이터	이미현, 이채영, 김서현
학예	안경화, 이수영, 이채영
아카이브	박상애
기술	이기준
홍보	최희승
디자인	이지영
도슨트	박은주
교육보조	이승희, 김보라
인턴	이춘영
행정지원	박영휘, 서은경, 김충선, 전문국, 배지현, 이석주, 박인호, 이종희, 설정숙, 최용학, 천수영
시설	이재룡, 곽재근, 김상규, 최종선
보안	한상현, 박대영, 이기웅, 정선열
안내	김은지, 정다은, 최슬기
미화	권오열, 강창순, 위광순, 박정녀
촬영	박노연, 백남준아트센터

008	Foreword	009	인사말
010	Overview	011	기획의 글
014	School-Related Education Program	014	학교연계 교육 프로그램
016	Exhibition-Related Program for School Groups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017	상반기 학생단체 전시연계 프로그램
036	Exhibition-Related Program for School Groups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037	하반기 학생단체 전시연계 프로그램
052	Teacher Workshop	053	교사 초청 워크숍
060	Career Exploration Program for Teen	061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
066	Program for Visitors with Disabilities	067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080	Public Education Program	080	대중 교육 프로그램
082	Winter Vacation Program: The Lunar World of Nam June Paik	083	겨울방학 프로그램: 달나라 백남준
088	Summer Vacation Program: 2014 NJP Creative Summer	089	여름방학 프로그램: 2014 NJP 크리에이티브 썸머
120	Art Lecture Series: NJP Salon	121	문화예술강좌: NJP 살롱
132	Volunteer Education Program	133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140	Saturday Cultural Schools	140	토요문화학교
156	Epilogue	157	프로그램을 마치며
160	Forum	161	간담회
176	Instructors	177	강사소개
180	History of Education	181	연혁

Foreword

Manu Park
Director, Nam June Paik Art Center

Nam June Paik Art Center publishes a book including all the education programs offered in 2014. Since the Art Center opened its doors, it has given a wide range of education programs. But it is the first time to publish this kind of archival source book since the Art Center started to run more systematic and substantial programs under the title of **School for the Paperless Society** in 2012.

While the term 'Paperless Society' used by Nam June Paik reflects his vision to predict the future digital society, the **School for the Paperless Society** by Nam June Paik Art Center is based on the philosophy of 'Paideia', the spirit of liberal humanistic education in the culture of ancient Greece, especially in Athenes. It is an educational ideology grounded on the belief that knowledge, virtue and a healthy body constituting as a whole is essential to the harmonious human life and those individuals can form a sound civil society.

However, all the education programs offered by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aims at 'learning through play', which is more fun and promotes more participation than school education, whoever the participants are - either younger audiences or regular adults. This is a school of conviviality through art and culture in which people share their cultural asset with each other, not a place controlled by the relations between educators and educatees who teach and learn knowledge and experiences. As a result, all the participants in this education program sometimes planned, practiced, presented the outcomes and shared each other's opinions and experiences.

I would like to thank all the participants, educators and instructors in our programs: **Kumdarak Saturday Cultural Schools**, exhibition-related program during vacations for teenagers including **NJP Creative Summer**, school-related education program during the school year such as career exploration workshop, and the **NJP Salon** for adults. Lastly, I hop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curator Yujean Rhee and the educator Mihyun Lee at the curatorial department of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for their efforts in producing and running the entire education programs.

인사말

박만우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2014년 백남준아트센터가 펼쳐 보인 교육 프로그램 모두를 아우르는 책자를 출간합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개관 이후 줄곧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여 왔지만 2012년부터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학교>라는 전체 교육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이름으로 보다 체계화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들을 전개 한 이후 이번에 처음 이러한 기록 자료집 성격의 책자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백남준 선생의 '종이 없는 사회'라는 용어는 미래의 디지털 사회를 예견하는 그분의 비전을 반영하고 있지만 백남준아트센터의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학교>는 고대 그리스, 특히 아테네의 자유로운 인성교육 정신이었던 '파이데이아' 이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앓과 도덕과 건강한 신체가 하나가 될 때 조화로운 인간의 삶을 구성하며 그러한 개인들이 모여 건전한 시민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신념에 토대한 교육 이념입니다.

그러나 백남준아트센터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은 보다 젊은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던 학교에서의 교육보다는 참여하고 즐기는 '학습놀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고 전수받는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가 지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가 자신의 문화적 자산을 공유하는 문화와 예술을 통한 공생(conviviality)의 배움터입니다. 따라서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때로는 스스로 기획하고, 연습하며 결과물을 발표하기도 했고 서로의 의견과 경험을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NJP 크리에이티브 썸머> 등을 비롯한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학 동안의 대중 교육 프로그램,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의 학기 중의 학교연계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 <NJP 살롱>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교육 강사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육 프로그램 전체를 기획하고 진행해주신 백남준아트센터 학예팀의 이유진 큐레이터와 이미현 에듀케이터 두 분의 노고에도 고마움의 뜻을 전합니다.

Art Education in the Era of Media: at a Crossroads

Yujean Rhee
Curator, Nam June Paik Art Center

Nam June Paik Art Center has run an education program entitled **School for the Paperless Society** since 2012, inspired by Nam June Paik's report *Expanded Education for the Paperless Society*. In this report that Paik wrote to the Rockefeller Foundation in 1968, he emphasized the change of education method in the new paperless media world and discussed the method of operation as well as utilization of the education program using the media through very concrete examples. Although Nam June Paik wrote this report more than 40 years ago, his vision of teaching method utilizing the media is still valid.

Not only adults but children are exposed to the media screens with various sizes, and it is difficult for them to escape from the media environments, wherever at home, school, and in society. Nam June Paik believed that what children, who will be placed within the media environments, need is media literacy and the ability to think and judge. He already broke the one-way passive relation with TV and made a two-way responsive experimental TV by manipulating the interior structure of the television at the time. According to Paik, kids will be able to get knowledge about physics and electronics as well, to break up their stereotypes through transformation if they conduct a TV experiment at school as he did. He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learning great thinkers' thoughts to enhance our thinking. He argues that one should use every possible information technique to convey the entire knowledge of great thinkers. He even considered creating a video platform which gathers video sources of great thinkers to be used as textbook depending on the individual interests and various videos including artistic activities, and making a distribution channel. Paik also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accept diverse cultures and to communicate through the new media without going directly to a certain place. Besides, he put an emphasis on activating these platforms through the low distribution costs, beyond the problem of wealth inequality.

Nam June Paik Art Center has explored what the art education required for the paperless society is that Nam June Paik dreamed of and how to apply it. Under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focusing on the college entrance exam, art education is gradually losing its place and is faced with paradoxical situations that cultural organizations get to undertake some part of art education, which public education should

미디어 시대의 예술 교육이라는 여러 갈래의 갈림길에서 의미 찾기

이유진
백남준아트센터 큐레이터

백남준아트센터에서는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확장된 학교」이라는 백남준의 글에서 영감을 받아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학교>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해 왔다. 록펠러 재단에 보고서의 형태로 1968년에 쓴 이 글에서 백남준은 종이가 없어질 새로운 미디어 세상에서 교육의 방식도 변모해야 함을 역설하였고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활용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백남준이 보고서를 쓴지 40년이 넘었지만 미디어를 활용한 그의 교수법에 대한 비전은 여전히 유효하다.

성인은 물론 아이들은 다양한 사이즈의 미디어 화면에 노출되고, 가정, 학교, 사회 어디를 가도 미디어 환경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었다. 백남준은 미디어 환경에 노출 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미디어를 읽어 낼 수 있는 능력과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이라고 생각했다. 백남준은 일찍이 텔레비전을 일방향적으로 보는 수동적인 관계를 과감하게 벗어나, 텔레비전 내부 조작을 통해 쌍방향으로 반응하는 실험 텔레비전을 만들었다. 백남준은 아이들에게 자신이 했던 것처럼 학교에서 텔레비전 실험을 할 수 있게 되면 물리학이나 전자공학에 대한 학습은 물론 변형을 통해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사상가들을 다양한 생각을 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였다. 그는 사상가들의 총체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동원가능한 모든 새로운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백남준은 개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교재가 될 수 있는 사상가의 비디오 소스, 예술 활동이 담긴 각종 동영상 등을 한자리에 모으는 동영상 플랫폼을 만들고 유통하는 채널을 만드는 것에 대한 고려까지 하였다. 백남준은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도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빈부의 문제를 넘어서서 저렴한 유통비용을 통해 이런 플랫폼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백남준아트센터에서는 백남준이 꿈꾸었던 '종이 없는 사회'에서 필요한 예술 교육이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해왔다. 입시위주의 교육 체제하에서 예술 교육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학교 밖 공간에서 공교육이 담당해야 할 예술 교육의 뭉가지 문화기관에서 일부 감당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들에 마주하게 되었다.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교육의 정체성 문제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데 큰 화두가 되어 돌아왔지만 백남준이 생각했던 비전들을 되돌아보며 우리 삶의 현실을 반영한 예술 작품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나의 환경을 돌아보고 비교해 보면서, 시각문화예술의 작동 원리를 스스로 체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하고자 하였다.

take charge of even outside the school. Although the question of identity of art education at the museum became a main concern in organizing and running the programs, Nam June Paik Art Center has focused on making programs to learn the mechanism of visual art and culture, while ruminating Paik's visions, improving the understanding of artworks; reflecting the reality of our life; comparing and looking back on our environments.

The education offered by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mainly consists of the following programs: School-related education program for groups of students as a class or a club and teachers; public education program for individual participants including students, adults, families, volunteers, etc.; Kumdarak Saturday Cultural Schools, an art and cultural education program outside of school. During the planning meeting, we had concerns about the ways to awaken children's emotions and whether they could deal with sensitive topics closely related to their real life. However, we didn't have to unduly worry about that. Once the education program started, I realized that it's actually adults who need to be freed from prejudices. Inducing children's immanent power, which they already have, became a requirement for the art education. In the beginning, they hesitated to speak fearing that their answers are not correct. But as soon as they noticed that the answers can vary, they gave their opinions, listened to others' stories and coordinated with each other. Although their expressions were not as refined as the adults', kids discovered the points to make a comparison with their life, and sought the meaning by themselves.

Listening carefully to kids, recognizing their word's value and sharing it are important factors that influence the quality of the program, which is run by the museum. Depending on the participants of the education and the method of their participation, time for listening to their voice was relatively short or long. Most of all, enjoying the process while believing in their power was more important than creating an excellent looking tangible outcome. Kids easily accepted Nam June Paik's way of thinking, who enjoyed looking at an object from an opposite angle, and applied it to them in their own way.

Education programs for adults include the **NJP Salon** that participants can understand easily from an appreciator's perspective, the **Cultural Volunteer Education Program** for adults who want to get involved in the museum as a mediator, and the workshops with artists. Even though the methods of participation vari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their enthusiasm and interest in Nam June Paik served as a valuable foundation in stimulating the energy of Nam June Paik Art Center so that his spirit lasts for a long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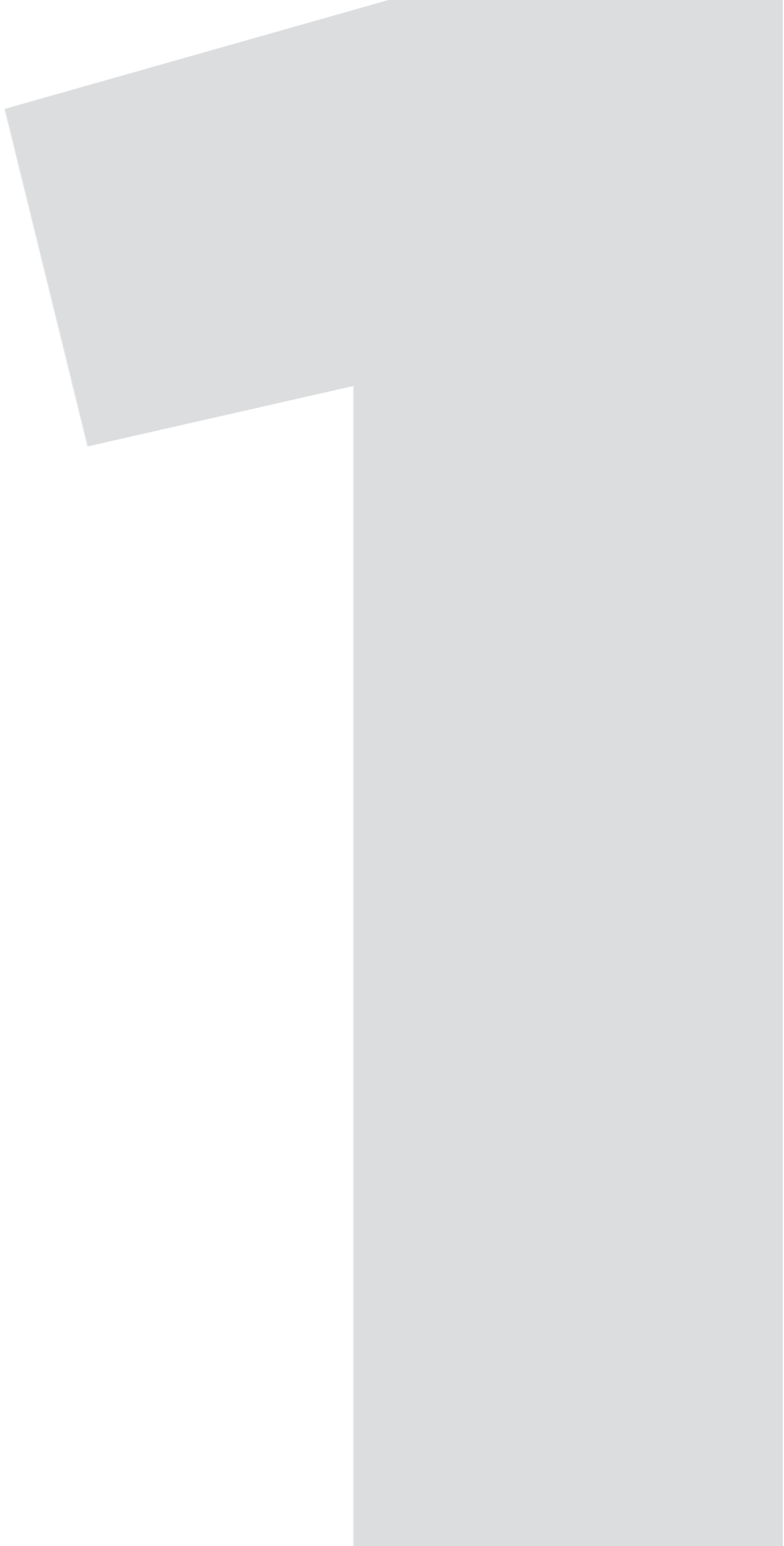
This source book is intended to share and revive the moments of interactions with the participants in a number of programs offered during the year. It consists of the contents showing the process of the education programs by Nam June Paik Art Center followed by the discussions about the direction of its education programs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with those involved in the education. Among many subjects discussed, all of us agreed with the point that one needs to admit the difference between you and I, and sometimes get lost on the crossroads in many directions to find the way by oneself and create the context in the end. I hope the ideas that Nam June Paik sowed 40 years ago became the new seeds for children living in the 21st century, and gave them the power to sprout while going through the wild sea of life.

백남준아트센터의 교육은 크게 학급 내지 동아리 단위의 학생단체 및 교사를 위한 학교연계 교육 프로그램, 학생·성인·가족·자원봉사자 등 개별 신청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교육 프로그램,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기획 회의를 하면서, 아이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민감한 주제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져올 때 과연 아이들이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걱정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감성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고민했던 시간들은 모두 기우가 되었다. 막상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나니 오히려 고정관념을 깨야하는 것은 성인들이란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에게 이미 내제된 힘이 충분히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끌어낼지 유도하는 것이 예술 교육에 필요한 조건이 되었다. 교육이 시작되고 처음에는 정답을 말하지 못할까봐 쭈뼛거리다가도 막상 답이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아이들은 금세 서로 의견을 내고 조율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다. 비록 어른처럼 세련된 말로 표현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아이들의 이야기는 작품을 보고 자신의 삶 속에서 적용 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 비교해보고 그 의미를 스스로 찾아 나갔다.

미술관 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교육 진행자가 얼마나 아이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의 가치를 인식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교육 대상이나 참여 방식에 따라서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도 하고 긴 경우도 있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힘을 믿고 과정을 함께 즐길 수 있는가가 어떤 결과물을 멋지게 도출해 내느냐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아이들은 뒤집어 보기를 즐겼던 백남준식의 사고방식을 쉽게 수용하고 자기화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는 향유자의 입장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NJP 살롱> 강좌와, 미술관에 매개자로서 개입하고 싶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작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각 프로그램의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참여 방식도 다르긴 했지만, 참여자들의 백남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그의 정신이 오래 지속 될 수 있도록 백남준아트센터의 에너지를 추동시키는 귀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본 자료집은 일 년간 이루어졌던 많은 프로그램들에 참여했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의 순간들을 되살리고 공유하고자 기획되었다. 자료집은 백남준아트센터 교육 프로그램의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내용과 실제 교육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이 다시 모여 백남준아트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방향성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많은 논의 내용들이 있었지만, 너와 내가 다름을 인식하고 어떻게 함께 나아가 할지 다양한 갈림길에서 헤매고 스스로 그 길을 찾아 맥락을 만들어내는 힘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백남준이 40여년 전에 뿌린 아이디어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씨앗으로 잉태되어 삶이라는 거친 바다를 헤쳐 가는 아이들에게 싹을 틔울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었기를 기대해 본다.



**학교연계
교육 프로그램**

**School-Related
Education Program**

Make My Own Rosetta Stone Drawing

Nam June Paik's *Key to the Highway* is a work in which Paik explained his art world in five languages in the form of Rosetta Stone*, which is the first key to deciphering ancient hieroglyphs. Participants appreciate the artworks of the exhibition *From the Horse to Christo* including this work, utilizing activity sheets, guided by a docent. Then they contemplate and express various ways of communication by creating 'my own Rosetta Stone', related to the *Key to the Highway*.

* Rosetta Stone is an ancient Egyptian monument inscribed with Egyptian hieroglyphs, demotic scripts and greek.

Period April 7 - June 20, June 30 - July 11, 2014
(Monday through Friday, except for closed days and public holidays) (90 min)

Venue Exhibition space and education room, Nam June Paik Art Center

Participants Elementary, middle & high school groups (20 - 40 people)

Instructors Hee Jeong Park, Youngkyung Kwon

Classification	Duration	Contents
Introduction	5 Min	Greetings and introduction of the program
Lecture	15 Min	Introduction of the exhibition and a story about Nam June Paik
Appreciation of the Exhibition	40 Min	Appreciating the works of the exhibition <i>From the Horse to Christo</i> using activity sheets
Expression Activity	25 Min	Creating my own Rosetta Stone in connection with Nam June Paik's work, <i>Key to the Highway</i>
Sharing	5 Min	Sharing the work and closing

말하는 드로잉

백남준의 <고속도로로 가는 열쇠>는 고대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첫 번째 열쇠인 로제타석*의 형태를 빌어 자신의 예술세계를 5개 국어로 설명한 작품이다. 참가자들은 이 작품을 비롯한 《말에서 크리스토포까지》 전시 작품을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활동지를 활용하여 감상한다. 이후 <고속도로로 가는 열쇠>와 연계하여 '나만의 로제타석'을 만들어 봄으로써 다양한 소통의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표현해본다.

* 로제타석은 고대 이집트 비석으로 이집트 상형문자, 민중문자, 그리스어가 새겨있다.

기간 2014. 4. 7 - 6. 20, 6. 30 - 7. 11 (월 - 금, 휴관일·공휴일 제외) (90분)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 및 교육실

대상 초·중·고등학교 학생단체 20 - 40명

강사 박희정, 권영경

구분	시간	내용
소개	5분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강의	15분	전시 소개 및 백남준 이야기
전시감상	40분	활동지를 활용하여 《말에서 크리스토포까지》 전시 작품 감상
표현활동	25분	백남준의 작품 《고속도로로 가는 열쇠》와 연계한 나만의 로제타석 그리기
공유	5분	작품 공유 및 마무리



《말에서 크리스토까지》 전시 작품
Exhibited in *From the Horse to Christo*

백남준

<고속도로로 가는 열쇠(로제타석)>
1995

Nam June Paik

Key to the Highway (Rosetta Stone)
1995
© Nam June Paik Estate



강의

강의를 통해 《말에서 크리스토까지》 전시와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알아본다.

L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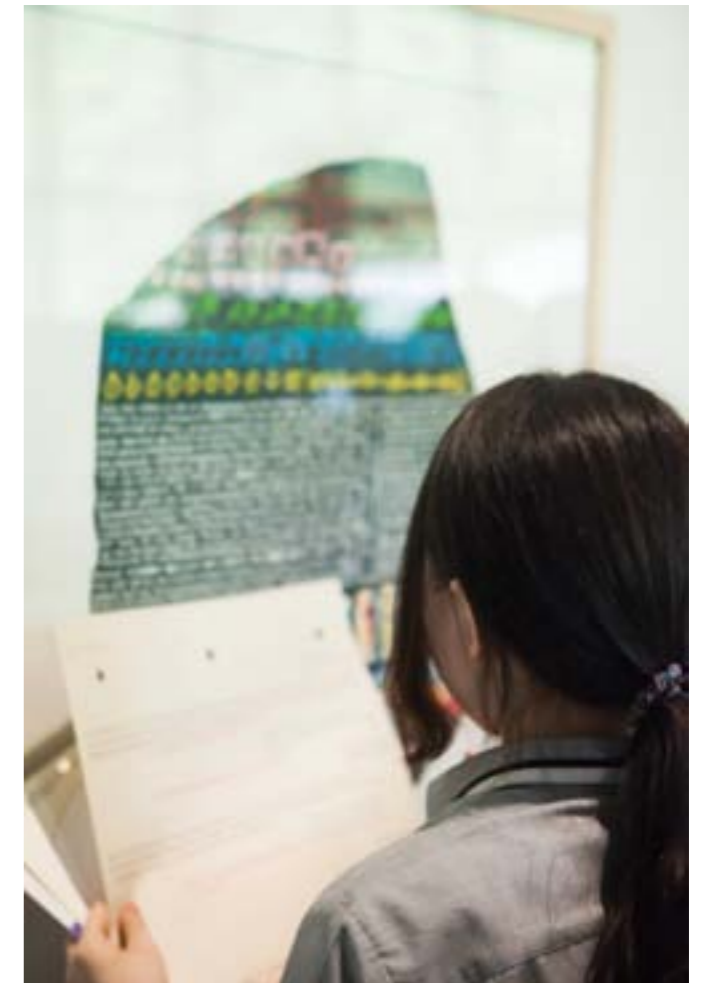
This lecture gives an overview of the exhibition
From the Horse to Christo and of Nam June
Paik's world of art.

전시감상

활동지를 활용하여 《말에서 크리스토까지》 전시를 심도 깊게 감상하고 백남준의 <고속도로로 가는 열쇠>를 중점적으로 감상하며 백남준의 소통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Appreciation of the Exhibition

Participants appreciate the exhibition *From the Horse to Christo* using activity sheets,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work, *Key to the Highway*, and investigate Nam June Paik's method of communication.



표현활동

백남준이 <고속도로로 가는 열쇠> 작품 안에서 보여준 소통방식을 이해하고 나만의 로제타석 그리기를 통해 각자의 소통방식에 대해 사유하고 표현해본다.

Expression Activity

Participants understand Nam June Paik's unique way of communication represented in his artwork, *Key to the Highway*, and think while expressing their own way of communication by drawing my own Rosetta Stone.



공유 및 마무리

나만의 로제타석이 완성되면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함께 해독해보며 나만의 소통 방식을 공유하고 서로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Sharing and Closing

When the Rosetta Stone is completed, the participants decipher its contents and take time for sharing and understanding their ways of communication.



활동 내용

<고속도로로 가는 열쇠>에서 백남준이 자신의 예술세계를 5개 국어와 드로잉으로 암호화해 표현하였던 것처럼 학생들도 자신만의 세계를 그림 또는 문자로 표현해본 프로그램이었다. '나만의 로제타석'을 만들어 자신의 발자취 또는 훗날 자신의 업적이라고 남길 수 있는 일을 예견하여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문자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새로운 말, 독특한 표식을 표현해보았다.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구체화하여 이를 문자, 수식, 도형 등을 사용하여 앞뒤의 이야기를 맞춰가며 해독해야 하는 정교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개별 작업을 마치고 서로 다른 친구들이 만든 작품을 함께 공유하며 새로운 기호 체계를 유추해 보면서 친구들의 창의적인 사고도 엿보고, 만들어진 기호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무엇보다 친구들의 작품을 보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된 시간이 되었다.

글_교육강사 권영경

Content of Activity

As Nam June Paik coded and expressed his art world in five languages and drawings in his artwork, *Key to the Highway*, students also expressed their own world in drawings or letters. By creating 'My Own Rosetta Stone', they represented the traces so far or predicted something that can be their future achievement. In this way, they created their own and unique letters and expressed new words and original signs. Participants carried out an elaborate work requiring them to embody the future they dreamed of and to decipher it, while considering the context of the stories, using letters, formulas and figures. When their individual work is finished, they had time to share each other's creative thoughts and analyze the signs they created, while sharing other friends' works and analogize new sign systems. Above all, it was time to pay attention to each other by sharing their works.

Article_Instructor Youngkyung Kwon

Shadow Play

Shadow Play is an education program in connection with the exhibition *Variations of the Moon*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o focus on the works from the exhibition and to do creative expression activities, utilizing activity sheets. This program aims to awaken the senses and provide time for thinking through the works of the artists exploring a new temporality of contemporary art. In addition, the participants does a shadow play, related to Ryota Kuwakubo's work *LOST #9*, which creates new images through the shadows formed by illuminating ordinary objects.

Period April 7 - June 27, 2014
(Monday through Friday, except for closed days and public holidays) (90 min)

Venue Exhibition space and education room, Nam June Paik Art Center

Participants Elementary, middle & high school groups (20 - 40 people)

Instructors Hee Jeong Park, Youngkyung Kwon

Classification	Duration	Contents
Introduction	5 Min	Greetings and introduction of the program
Lecture	15 Min	Introduction of the exhibition and the participated artists
Appreciation of the Exhibition	40 Min	Appreciating the artworks of the exhibition <i>Variations of the Moon</i> using activity sheets.
Expression Activity	25 Min	Shadow play in connection with Ryota Kuwakubo's work, <i>LOST #9</i>
Sharing	5 Min	Sharing the work and closing

그림자 놀이

《달의 변주곡》 전시와 연계한 초·중·고 학생단체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동지를 활용하여 전시 작품을 집중 감상하고, 창작 표현 활동을 한다. 현대 예술의 새로운 시간성을 탐구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감성을 깨우고 명상과 사유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일상의 물건에 빛을 비춰 생긴 그림자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탄생시키는 료타 쿠와쿠보의 작품 <LOST #9>과 연계하여 그림자 놀이를 해본다.

기간 2014. 4. 7 - 6. 27 (월 - 금, 휴관일·공휴일 제외) (90분)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 및 교육실

대상 초·중·고등학교 학생단체 20 - 40명

강사 박희정, 권영경

구분	시간	내용
소개	5분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강의	15분	전시 소개 및 참여 작가 소개
전시감상	40분	활동지를 활용하여 《달의 변주곡》 전시 작품 감상
표현활동	25분	료타 쿠와쿠보의 작품 <LOST #9>과 연계한 그림자 놀이
공유	5분	작품 공유 및 마무리



《달의 변주곡》 전시 작품, 사진 김경수
 Exhibited in *Variations of the Moon*, Photo Kyungsu Kim

료타 쿠와쿠보

<LOST #9>
 2013
 설치

Ryota Kuwakubo

LOST #9
 2013
 Installation

강의

강의를 통해 《달의 변주곡》 전시를 이해하고 참여 작가 및 작품에 대해 알아본다.

Lecture

This lecture enables the participants to understand the exhibition *Variations of the Moon*, and to look into the participated artists and their artworks.





표현활동

모둠을 나누고 각 모둠별로 연출하고자 하는 그림자 풍경을 구체화하여 기차길 주변에 일상의 물품을 배치하여 기차가 지나가는 방향과 시간에 따라 그림자가 생기는 우연성을 경험하며 그림자 놀이를 한다.

Expression Activity

Students are divided into groups and do a shadow play by materializing the scenes of shadow that each group wants to produce, placing ordinary objects around the railway and experiencing the coincidence of creating the shadows in accordance with time and directions through which the train passes.



전시감상

활동지를 활용하여 《달의 변주곡》 전시를 감상하고 료타 쿠와쿠보의 작품 <LOST #9>을 중점적으로 감상하며 일상의 풍경을 그림자로 표현하는 방법을 구상한다.

Appreciation of the Exhibition

Participants devise a way of expressing ordinary scenes with the shadows after watching the exhibition *Variations of the Moon* with activity sheets, especially focusing on Ryota Kuwakubo's work *LOST #9*.

공유 및 마무리

서로 다른 모둠의 그림자로 표현된 풍경을 감상하고 각자의 느낀 점을 공유하며 우연히 또는 의도해서 나타난 그림자의 신비로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Sharing and Closing

Participants appreciate the scenes expressed with the shadows by other groups, share their feelings and experience the magic of shadows created intentionally or accidentally.





활동 내용

료타 쿠와쿠보의 <LOST #9> 작품처럼,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을 기차길 주변에 배치하고 빛을 밝힌 기차가 어둠속을 달리며 배치한 물건에 빛을 비춰 그 그림자를 통해 일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발견하고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 냈다.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한 이 수업은 팀워크가 필요했다. 주제를 정하는 일부터 생각이 다른 친구들 간에는 조율이 필요했고 물건들을 어떻게 놓을지를 서로 상의해보는 시간도 필요했다. 한번은 작품 제목을 짓는데 서로 다른 제목을 말하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다 마지막에 조율하여 모두의 제목을 조화롭게 조합하여 완성하기도 하였다. 구성원들간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면서 새로운 '그림자 세상'을 만들어 보았다. 다른 팀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주제와 그림자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지에 대해 서로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통해 다른 상상을 해보기도, 함께 감탄을 하기도 했던 중요한 시간이었다. 일상의 평범한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글_교육강사 권영경

Content of Activity

In this program, participants discovered the images that they didn't experience in their everyday life and created another world through the shadows created by placing ordinary objects near the railway and by making the running train to illuminate the objects. Students divided into two groups were required to have a good teamwork in this class. They cooperated with each other in selecting a topic, resolving different ideas and deciding the way of putting the objects. They once couldn't bridge the different opinions in choosing the title of the work, but in the end, they completed the title by combining all the titles harmoniously. They created a new world of shadow in the process of finding and solving the problems among the group members. While appreciating the other team's works, they had evaluated each other to see if the topic and the images of the shadow go well with each other, And they shared the world of shadow that they imagined together. This program allowed the participants to experience the joy of seeing ordinary objects in our daily life from a new perspective.

Article_Instructor Youngkyung Kwon.

O! Superman

Laurie Anderson, who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Good Morning Mr. Orwell 2014*, described and criticized those having power in contemporary American society through her work *O Superman*. In peer groups, one would often attack and leave out the friends considered as weaker than oneself. Participants think of diverse aspects of people with power and express ideal images of them.

* Stories about friendship in peer groups

Period September 11 - November 14, 2014
(Monday through Friday, except for closed days and public holidays) (90 min)

Venue Exhibition space and education room, Nam June Paik Art Center

Participants Elementary school groups (20 - 40 people)

Instructors Hee Jeong Park, Youngkyung Kwon

Classification	Duration	Contents
Introduction	5 Min	Greetings and introduction of the program
Lecture	15 Min	Introduction of the exhibition and the participated artists
Appreciation of the Exhibition	30 Min	Appreciating the artworks of the exhibition <i>Good Morning Mr. Orwell 2014</i>
Expression Activity	30 Min	- Understanding various meanings of power - Expressing the ideas on the ideal power and proper use of power in the relationship with friends
Sharing	10 Min	Sharing the work and closing

오! 슈퍼맨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 참여 작가인 로리 앤더슨은 <오 슈퍼맨>이라는 작품에서 미국 현대 사회에서 힘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비판하였다. 또래집단에서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을 공격하거나 따돌리는 행위가 종종 발생한다. 참가자들은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생각해보고 힘을 가진 사람의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다.

* 또래집단에서의 친구관계에 관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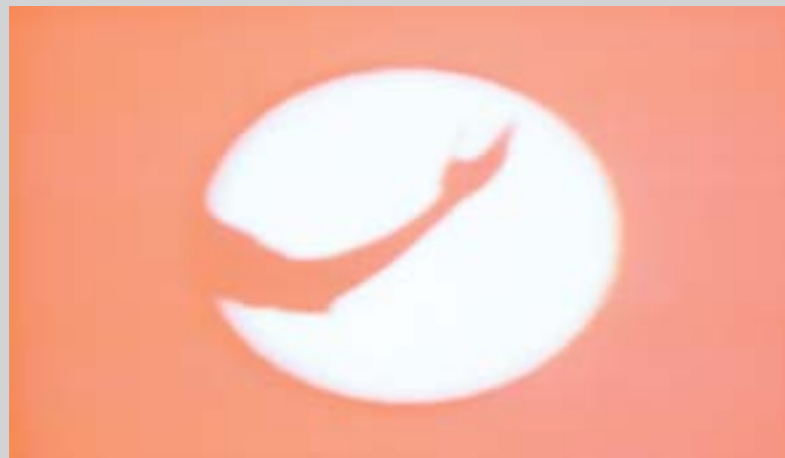
기간 2014. 9. 11 - 11. 14 (월~금, 휴관일·공휴일 제외) (90분)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 및 교육실

대상 초등학교 학생단체 20 - 40명

강사 박희정, 권영경

구분	시간	내용
소개	5분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강의	15분	전시 소개 및 작품 속에 나타난 힘에 관한 이야기
전시감상	30분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 작품 감상
표현활동	30분	힘의 다양한 의미 이해하기 친구 관계 안에서의 이상적인 힘과 올바른 힘의 사용에 관한 생각을 표현하기
공유	10분	작품 공유 및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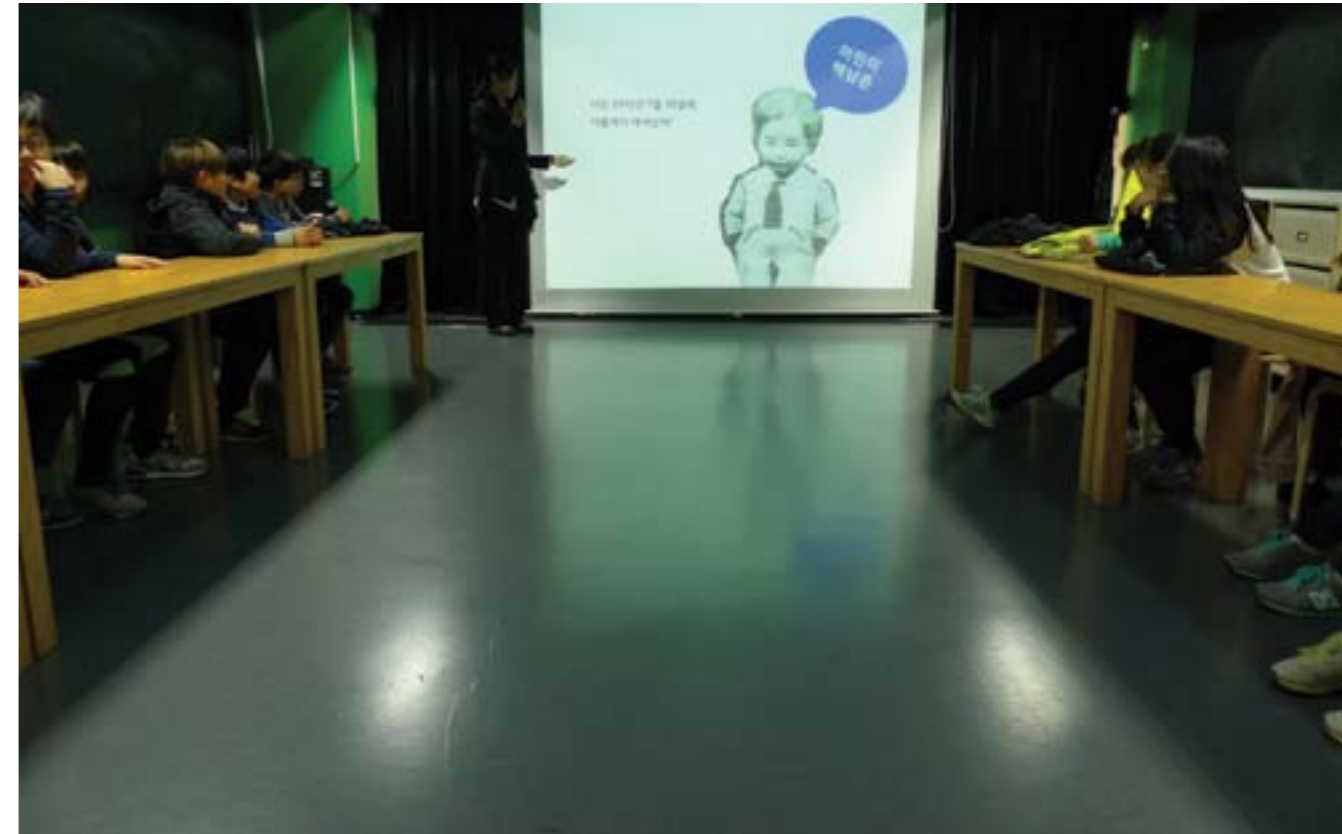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 작품
Exhibited in *Good Morning Mr. Orwell 2014*

로리 앤더슨
<오 슈퍼맨>
1982
유성 컬러 비디오

Laurie Anderson
O Superman
1982
Video, Color, Sound

강의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 작품에서 나타난 힘에 대해 살펴본다.

Lecture
This lecture investigates the power represented in the works of the exhibition *Good Morning Mr. Orwell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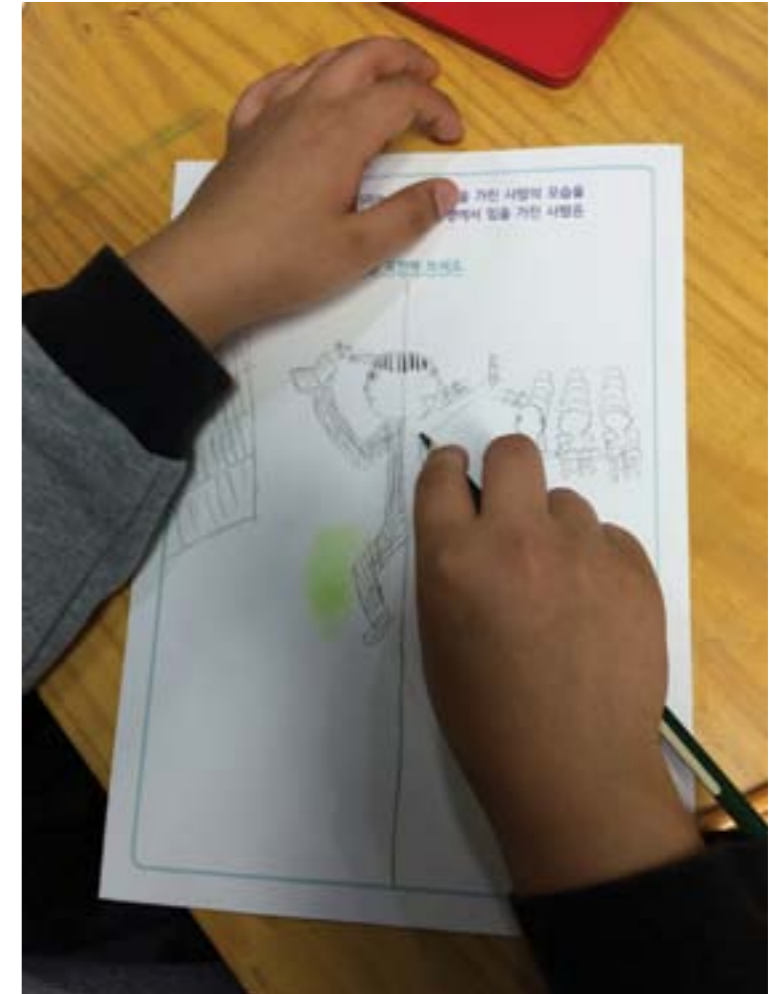


전시감상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 속에 표현된 다양한 힘에 관해 알아본다. 로리 앤더슨의 <오 슈퍼맨> 작품을 집중적으로 감상하고 다양한 힘, 올바른 힘을 사용하는 것에 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Appreciation of the Exhibition

While appreciating the artworks displayed in the exhibition *Good Morning Mr. Orwell 2014*, participants learn about diverse powers expressed in the works. Particularly focusing on Laurie Anderson's *O Superman*, they think about various types of powers and the correct use of them.



표현활동

물리적인 힘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까지 다양한 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다. 우리의 일상생활, 특히 또래집단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 관계 안에서 이상적인 힘과 힘의 사용에 관한 생각을 표현해 본다.

Expression Activity

One looks into the definition of various powers from physical power to invisible power. They have a conversation about a range of powers taking place in our daily life, especially in peer groups.

공유 및 마무리

발표를 통해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또래집단 안에서의 올바른 힘 사용과 이상적인 친구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Sharing and Closing

Through the presentation, participants have an opportunity to think of the correct use of power and ideal relations with friends in peer groups.



활동 내용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어떤 힘들이 있을까? 내게 힘이 생긴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 힘을 발휘할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는 <오! 슈퍼맨> 전시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 학생들은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슈퍼맨이 되어보았다. 친구들의 다툼이 있는 곳에서 커다란 평화의 보자기를 던지는 슈퍼맨이 되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고,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드는 슈퍼맨이 되어서 방과 후 배고픈 친구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싶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잘 웃는 친구가 있어서 언제나 즐거웠고 자신도 그 친구처럼 웃음을 전해주는 슈퍼맨이 되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다. '왕따'와 '따돌림'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점에서 학생들이 표현한 슈퍼맨의 이야기들은 글로벌 소통을 꿈꾸었던 백남준의 여러 작품 속 이야기들과 닮았다. 또한 조용한 몸짓과 소리로 노래하듯이 이야기하는 작품 <오 슈퍼맨>에서 로리 앤더슨이 보여주었던 힘의 모습이 지녀야 할 가장 근원적인 의미를 스스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글_교육강사 박희정

Content of Activity

What kind of powers exist in our society? If I have a power, how will I exert the power? In the education program connected to the exhibition **O! Superman** and starting with many questions, participating students become a superman for themselves in their peer relationship. One of the students wanted to be a superman to throw a big cloth of peace into the place of conflict among friends, and another student said he would be a good cook superman to hand out food to hungry friends. A student wanted to be a superman spreading smiles like her friend, who smiles well and always makes her feel happy. In today's society with a growing number of social problems such as 'bullying' and 'out cast', the stories of superman that the students described resembled those represented in many works of Nam June Paik, who dreamed of global communications. Besides, the program offered the students an opportunity to see the most fundamental significance that powers should have as Laurie Anderson showed in her work *O Superman* telling a story like a song with quiet gestures and sounds.

Article_Instructor Hee Jeong Park

Someone Who Predicts the Future

In *Good Morning Mr. Orwell*, Nam June Paik showed his idea that technological development can make a worldwide communication available as a rebuttal to George Orwell's novel *1984**. As Nam June Paik and George Orwell had a different viewpoint on the future from each other, participants predict the future society according to their own vision.

* George Orwell's *1984* is a futuristic novel depicting the future society of 1984 which is watched and controlled due to technological advances.

Period September 11 - November 28, 2014
(Monday through Friday, except for closed days and public holidays) (90 min)

Venue Exhibition space and education room, Nam June Paik Art Center

Participants Middle & high school groups (20 - 40 people)

Instructors Hee Jeong Park, Youngkyung Kwon

Classification	Duration	Contents
Introduction	5 Min	Greetings and introduction of the program
Lecture	15 Min	Comparing <i>1984</i> by George Orwell and <i>Good Morning Mr. Orwell</i> by Nam June Paik, which predict the future society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with each other
Appreciation of the Exhibition	30 Min	Appreciating the works of the exhibition <i>Good Morning Mr. Orwell 2014</i>
Expression Activity	30 Min	Predicting and expressing the future society in 2041
Sharing	10 Min	Sharing the work and closing

미래를 예견하는 자

백남준의 <굿모닝 미스터 오웰>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대한 다른 의견으로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세계를 소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미래를 바라보는 백남준과 조지 오웰의 시각이 달랐듯이 각자의 생각으로 미래 사회 모습을 예견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조지 오웰의 「1984」는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1984년에는 감시당하고 통제받는 모습을 그린 미래 소설이다.

기간 2014. 9. 11 - 11. 28 (월~금, 휴관일·공휴일 제외) (90분)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 및 교육실

대상 중·고등학교 학생 단체 20 - 40명

강사 박희정, 권영경

구분	시간	내용
소개	5분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강의	15분	조지 오웰과 백남준이 미래 사회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예견한 작품 「1984」와 <굿모닝 미스터 오웰> 살펴보기
전시감상	30분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 작품 감상
표현활동	30분	2041년 미래 사회를 예견하여 표현하기
공유	15분	작품 공유 및 마무리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 작품
 Exhibited in *Good Morning Mr. Orwell 2014*

백남준

<굿모닝 미스터 오웰>
 1984
 유성 컬러 비디오

Nam June Paik

Good Morning Mr. Orwell
 1984
 Video, Color, Sound
 © Nam June Paik Estate

강의

조지 오웰의 「1984」와 백남준의 <굿모닝 미스터 오웰> 작품의 관계를 이해하고 각자 다른 미래 사회를 예견하였던 이야기를 살펴본다.

Lecture

This lecture is intended to understand the relation between George Orwell's *1984* and Nam June Paik's *Good Morning Mr. Orwell* and to look into the stories with different visions of the future society.



전시감상

기술의 발달로 인해 통제와 감시 속에서 살아가는 어두운 사회를 그린 모습과 그 기술의 발달로 세계는 함께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 모습을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 작품을 통해 감상하고 이해한다.

Appreciation of the Exhibition

Participants appreciate and understand the artworks included in the exhibition *Good Morning Mr. Orwell 2014* depicting two different societies: a dark society where people live under control and surveillance and another society where the world can communicate due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표현활동

기술의 발달로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 될지 각자의 표현 방식으로 2041년을 예견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Expression Activity

Participants predict what the future society in 2041 will be like and express it in their own way.

공유 및 마무리

각자가 예견하여 표현한 2041년 미래 사회를 발표하며 함께 공유한다.

Sharing and Closing

Each participant presents and shares what they predicted and expressed in regard to the future society.



활동 내용

「말馬에서 크리스토폰까지」라는 글에서 백남준은 예술가의 역할은 미래를 사유하는 것이고, 미래를 사유한다는 것은 미래에 실현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떠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전시연계 교육 프로그램 <미래를 예견하는 자>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2041년을 생각하면서 내가 속하게 될 사회의 모습을 예견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조지 오웰은 「1984」에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백남준은 <굿모닝 미스터 오웰>에서 소통의 다리로 테크놀로지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 특별전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를 통해 백남준의 작품 외에 현대 작가들이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이야기들을 접하고 각자가 꿈꾸는 미래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채롭게 표현하였다. 미래 소설을 쓰듯이 글을 쓰는 학생에서부터 영화의 시나리오 콘티를 만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었다. 미래의 모습을 알 수는 없지만 참여한 학생들 모두가 이 시간에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기반이 되어 사유하는 예술가로서 다양한 사회 속 '빅브라더'로부터 자유하기를 소망한다.

글_교육강사 박희정

Content of Activity

In the article 'From the Horse to Christo', Nam June Paik argued that the role of the artist is to think about the future and thinking about the future is to come up with a wide range of realizable scenarios in the future. In the exhibition-related education program **Someone Who Predicts the Future**, participants have a chance to foresee the future society that they will belong to, while thinking of the forthcoming year 2041. What changes will technological development bring to the future? George Orwell and Nam June Paik showed a different aspect of technology as a means of surveillance and control in *1984* and as a bridge of communication in *Good Morning Mr. Orwell* respectively. Through *Good Morning Mr. Orwell 2014*, participants in this program see a picture of our society described by contemporary artists as well as Nam June Paik and expressed diverse visions of the future they dreamed of in their own way. Someone wrote a kind of futuristic novel and someone wrote movie scripts. Even if they don't know the future, all the participants hope to be free from the 'Big Brother' in a diversity of societies as a thinking artist based on what they felt and experienced in this class.

Article_Instructor Hee Jeong Park

Teacher Workshop

With the opening of the new exhibitions, Nam June Paik Art Center holds a workshop for elementary & middle & high school teachers and art instructors to introduce and guide the exhibitions, education programs as well as the Art Center every half year. The Art Center publishes and distributes teacher's manuals on the exhibition for teachers to refer to it upon a visit to the Art Center with students and manual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and the artist Nam June Paik.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its education programs and the lecture by the curator who planned and organized the exhibition, exhibition tour is given by the curator. After the tour, participants have an opportunity to think of and share the ways of applying the exhibition to their students and school curriculum through the question and answer session.

In Connection with the Exhibitions *From the Horse to Christo, Variations of the Moon*

Period March 25(Tue), 2014, 16:00 - 18:00
Venue Seminar room, 2nd floor, Nam June Paik Art Center
Participants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teachers and art instructors (80 people)

Classification	Contents
Introduction	Introduction of the purpose and the overview of the exhibition
Lecture	Exhibition and education program guide Distribution of the teacher's manual
Appreciation of the Exhibition	Appreciating the exhibition works with a curator
Q&A	Sharing effective ways of utilizing exhibition and education programs

교사 초청 워크숍

백남준아트센터에서는 새로운 전시를 오픈하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예술 강사를 초청하여 아트센터 기관 소개와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에 관해 안내해드리는 교사 초청 워크숍을 진행한다. 학생들과 함께 아트센터 방문 시 참고 할 수 있는 전시에 관한 교사용 지도서와 백남준아트센터 기관 및 예술가 백남준 소개를 담은 지도서를 제작하여 함께 배포한다. 아트센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의 강의 후 큐레이터가 직접 전시 투어를 진행한다. 관람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전시를 학생들과의 교과과정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적용시킬지 등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말에서 크리스토폰까지》, 《달의 변주곡》 전시연계

기간 2014. 3. 25 (화), 16:00 - 18:00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
대상 초·중·고등 교원 및 문화예술강사 80명

구분	내용
소개	전시 취지 및 개요 소개
강의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안내 교사용 지도서 배포
전시감상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전시 작품 감상
질의응답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 공유

In Connection with the Exhibition
Good Morning Mr. Orwell 2014

Period September 2(Tue), 2014, 16:00-18:00
 Venue Seminar room, 2nd floor, Nam June Paik Art Center
 Participants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teachers and art instructors (80 people)

Classification	Contents
Introduction	Introduction of the purpose and the overview of the exhibition
Lecture	- Exhibition and education program guide - Distribution of the teacher's manual and source book
Appreciation of the Exhibition	Appreciating the exhibition works with a curator
Q&A	Sharing effective ways of utilizing exhibition and education programs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연계

기간 2014. 9. 2 (화), 16:00-18:00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
 대상 초·중·고등 교원 및 문화예술강사 80명

구분	내용
소개	전시 취지 및 개요 소개
강의	-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안내 - 교사용 지도서, 자료집 배포
전시감상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전시 작품 감상
질의응답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 공유

강의

백남준아트센터와 예술가 백남준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백남준아트센터 기관 및 예술가 백남준에 관한 자료집, 전시에 관한 교사용 지도서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백남준아트센터 기관 소개와 현재 진행되는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Lecture

Nam June Paik Art Center publishes and distributes source books on the Art Center and the artist Nam June Paik and teacher's manuals on the exhibition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enter and the artist.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and its exhibitions and education programs are introduced to participants.





질의응답 및 공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전시 내용을 교과과정 안에서 어떻게 적용시키고 학생들과 함께 나눌 것인지에 관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Q&A and Sharing

Through the question and answer session, participants exchange their ideas on how to apply the contents of the exhibition to their school curriculum and share them with students.



전시감상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가 직접 설명을 하며 전시 작품 감상을 돕는다.

Appreciation of the Exhibition

The curator who planned and organized the exhibition, helps participants to appreciate the artworks of the exhibition as a docent.



What Curators and Museum Workers Do?

This program enables participants to look around the exhibition space and investigate the roles of museum and diverse duties of the people working for the museum. Through this program, youth participants can understand a wide range of museums and museum-related jobs and have an opportunity to search for their careers.

Period October 17(Fri) & November 14(Fri), 2014, 14:00 - 15:30 (90 min)
 Venue Exhibition space and seminar room, Nam June Paik Art Center
 Participants Middle & high school groups (20 - 40 people)
 Instructors Yujean Rhee, Minja Han, Seung Hoon Dong

Classification	Duration	Contents
Introduction	10 Min	Greetings and introduction of program
Appreciation of the Exhibition	40 Min	Appreciating the works of the exhibition <i>Good Morning Mr. Orwell 2014</i>
Lecture	30 Min	Stories about the museum and museum-related people
Q&A	10 Min	Solving the curiosity about museum staff

미술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을 둘러보고, 미술관의 역할과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직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다양한 미술관 및 관련 직업에 대해 이해하며, 청소년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기간 2014. 10. 17 (금) - 11. 14 (금), 14:00 - 15:30 (90분)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 및 교육실
 대상 중·고등학교 학생단체 20 - 40명
 강사 이유진, 한민자, 동승훈

구분	시간	내용
소개	10분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전시감상	40분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 작품 감상
강의	30분	미술관과 미술관을 둘러싼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질의응답	10분	미술관 사람들에 관한 궁금증 풀기



소개 및 전시감상

백남준아트센터 방문한 청소년들에게 미술관 및 박물관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보고, 두 기관의 유사점 및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직접 아트센터 전시장을 둘러보고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 주제 및 전시된 작품을 감상한다.

Introduction and Appreciation of the Exhibition

Teenagers visiting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learn about how museums and art museums are established a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institutes. They take a look around the exhibition space of the Art Center and explore the topics and artworks of the exhibition *Good Morning Mr. Orwell 2014*.





강의

아트센터 공간에서 어떻게 전시가 이루어지는지 보고 온 아이들과 전시 준비과정 사진을 보면서 전시가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전시 주제에 맞춰 작품을 선정하고 전시장 구성에 맞춰 작품이 놓이는 과정을 함께 살펴본다. 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떤 전문성을 가진 미술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지 살펴보고 미술관 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눈다. 미술관을 둘러싼 직업들에서 필요한 능력과 적성을 안내하고 아이들이 궁금한 점들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Lecture

After learning how exhibitions come to be held in the space of the Art Center, participants investigate how the exhibitions proceed, while watching the pictures which show the process of preparation for the exhibition. They also see the process of selecting artworks according to the theme of the exhibition and placing them in accordance with the composition of the exhibition space. This lecture also intends to let participants know what kind of professional museum staff are necessary to organize an exhibition and to discuss about the roles of outside specialists other than museum staff.



활동 내용

미술관 공간에서 보이는 오브제 자체에 집중하던 아이들에게 전시가 기획되고 작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 공간에 들어오고 배치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 미술관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미술관이 문화적 산물을 담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전시라는 것이 단순히 작품만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아이들이 미술관 공간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을 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미술관을 접하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아이들이 미술관에서 가장 처음 접하는 직업이 도슨트나 큐레이터인 경우가 많은데, 관람객이 보지 못하는 미술관의 속살을 드러내 작품을 보존, 연구, 교육, 관리하는 많은 직업들이 공존하는 또 다른 세상이라는 사실을 통해 미술관이 우리 삶과 유리된 공간이 아닌 우리 삶에 연결된 사회적 기관이란 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예술을 생산하는 창조자가 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적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과 관련된 직종에서 적극적인 문화생산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Content of Activity

This program is devised to help students, who usually focus on the object itself seen in the space of a museum, to better understand a particular space of museum by explaining the process in which exhibitions are planned and artworks come to be placed and arranged in the space. Although one knows that museum is a place containing cultural products, this program showed that the exhibition is not just an arrangement of artworks, but a process resulting from collaboration and research by many people. It aims to give students an opportunity to see and think of the museum from a different angle when they visit this space of museum again. In many cases, the first jobs that people encounter at the museum are docents and curators, but this program suggests that museum is another world where many jobs in charge of preservation, research, education and management of artworks coexist, while revealing the inside of the museum that visitors can't see. In this context, museum is not a place isolated from our life, but a social institution connected to our life. The program is also intended to share the possibility to participate in the art-related jobs as an active producer of culture, considering one's aptitude, even if not being a creator who produces art.

The First Half of the Year Making My Own Experimental TV

Nam June Paik Art Center runs a program for disabled children and youths. Participants see familiar televisions from a new viewpoint through Nam June Paik's experimental TV and make their own experimental TV. In the course of appreciating the exhibition and drawing, cutting, making and becoming interested in the work of art, participants get to express their thoughts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Period January 2 - July 11, 2014 (90 min)
 Venue Education room, exhibition space, Nam June Paik Art Center
 Participants Disabled children and youths group (10 - 20 people)
 Instructors Mihyun Lee, Hee Jeong Park, Youngkyung Kwon

Classification	Duration	Contents
Introduction	10 Min	Greetings and introduction of program
Appreciation of the Exhibition	30 Min	Appreciating the works of the exhibitions <i>Gentle Disturbance-Talking Paik</i> and <i>Doug Aitken-Electric Earth</i>
Expression Activity	40 Min	Making my own experimental TV
Sharing	10 Min	Sharing and closing

상반기 프로그램 <나의 실험 TV> 만들기

백남준아트센터에서는 장애 아동·청소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리에게 친숙한 텔레비전을 백남준의 실험 TV를 통해 새롭게 바라보고, 나만의 실험 TV를 만든다. 전시 감상을 통해 작품에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자르고,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간 2014. 1. 2 - 7. 11 (90분)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 및 교육실
 대상 장애 아동·청소년 단체 10 - 20명
 강사 이미현, 박희정, 권영경

구분	시간	내용
소개	10분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전시감상	30분	《부드러운 교란-백남준을 말하다》, 《더그 에이트킨-전기 지구》 전시 작품 감상
강의	40분	나만의 실험 TV 만들기
질의응답	10분	공유 및 마무리



백남준
<참여 TV>
1963(1998)

Nam June Paik
Participation TV
1963(1998)
© Nam June Paik Estate



백남준
<닉슨 TV>
1965(2002)

Nam June Paik
Nixon TV
1965(2002)
© Nam June Paik Estate



전시감상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부드러운 교란-백남준을 말하다》, 《더그 에이트킨-전기 지구》 전시 작품을 감상한다. 전시 작품 중에서 백남준의 실험 TV를 집중해서 감상하고 표현활동하기 전 이해를 돕는다.

Appreciation of the Exhibition

While listening to the docent's explanation, participants appreciate the artworks of the exhibitions *Gentle Disturbance-Talking Paik* and *Doug Aitken-Electric Earth*. A main focus for the exhibition works is Nam June Paik's Experimental TV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xpression activity.

표현활동 및 공유

백남준의 다양한 실험 TV 작품을 추가로 살펴본 후 실험 TV 키트의 종이를 뜯고, 접고, 붙이며,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다. 자신의 생각을 담은 나만의 실험 TV를 만든다. 작품이 완성되면 어떤 의미가 담긴 실험 TV 인지 발표하며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Expression Activity and Sharing

After investigating Nam June Paik's various experimental TV works additionally, participants think of what to express, while tearing, folding and pasting the paper included in the experimental TV kit. Then they make their own experimental TV based on their own ideas. Upon completion of the work, they present and share the meaning of their experimental TV.





The Second Half of the Year O! Superman

Artist Laurie Anderson, who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Good Morning Mr. Orwell 2014*, described and criticized people in power in contemporary American society. Participants in this program visualize diverse aspects of powerful people in their living environment and create an imaginary superman.

Period September 11 - November 14, 2014 (90 min)
 Venue Education room & exhibition space, Nam June Paik Art Center
 Participants Disabled children and youths group (10-20 people)
 Instructors Mihyun Lee, Hee Jeong Park, Youngkyung Kwon

Classification	Duration	Contents
Introduction	10 Min	Greetings and introduction of program
Appreciation of the Exhibition	30 Min	Appreciating the works of the exhibition <i>Good Morning Mr. Orwell 2014</i>
Expression Activity	40 Min	Expressing an imaginary superman
Sharing	10 Min	Sharing and closing

하반기 프로그램 <오! 슈퍼맨>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 참여 작가인 로리 앤더슨은 <오 슈퍼맨>이라는 작품에서 미국 현대 사회의 힘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비판하였다. 우리도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생각해보고 가상의 슈퍼맨을 만든다.

기간 2014. 9. 11 - 11. 14 (90분)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 및 교육실
 대상 장애 아동·청소년 단체 10 - 20 명
 강사 이미현, 박희정, 권영경

구분	시간	내용
소개	10분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전시감상	30분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 작품 감상
표현활동	40분	가상의 슈퍼맨 표현하기
공유	10분	공유 및 마무리



표현활동 및 공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경우를 알아보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내게 필요한 힘을 생각해본다.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그림 또는 만들기를 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완성된 작품을 발표를 통해 함께 공유하며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시간을 갖는다.

Expression Activity and Sharing

Participants think of the correct use of power in their relations with friends and the power they need to build a good relationship with friends. They express their ideas through drawing or making from various materials and take time for encouraging and complimenting each 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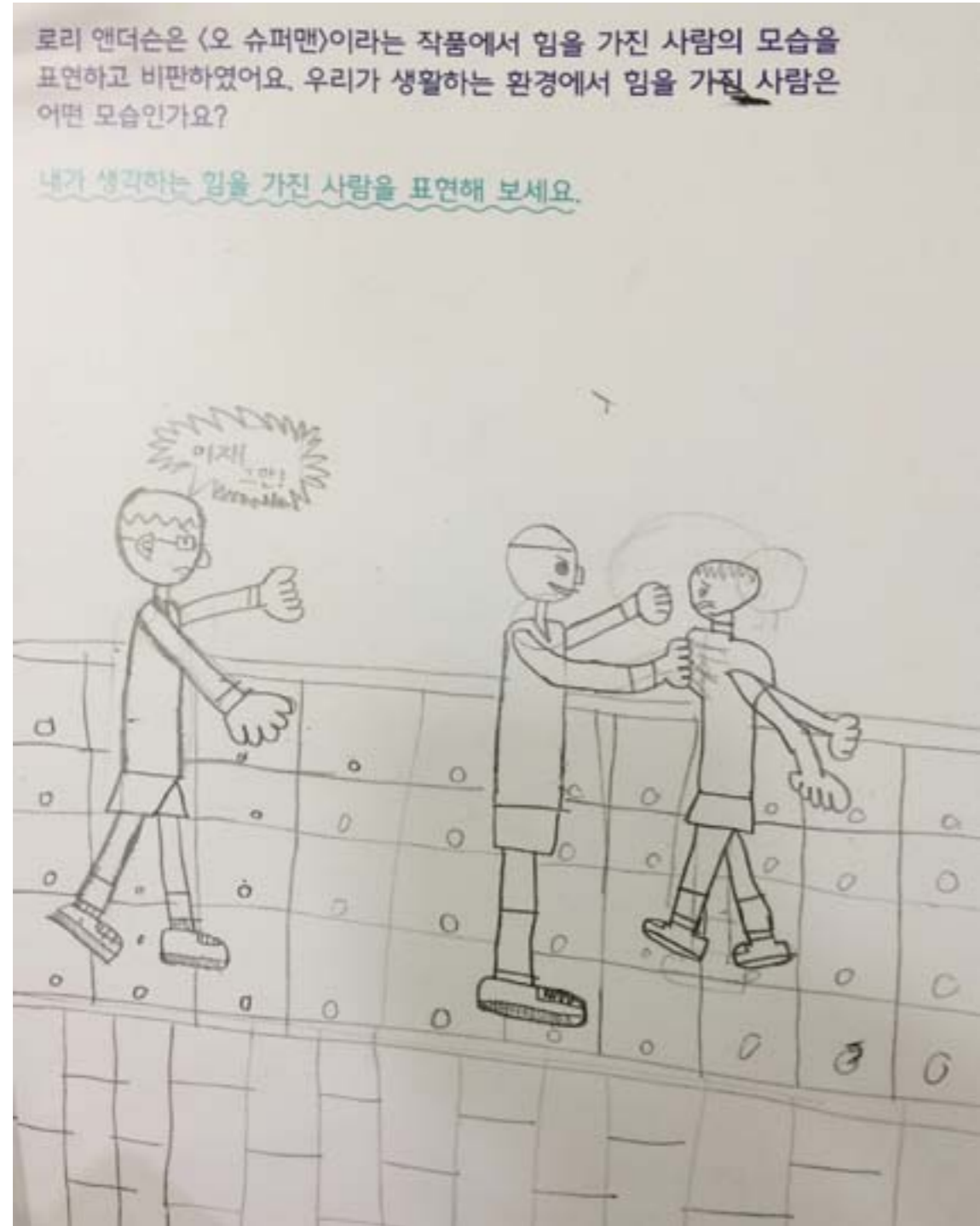


전시감상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 작품 중 로리 앤더슨의 <오 슈퍼맨>을 집중 감상하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힘과 올바른 힘 사용에 대해 생각해 본다.

Appreciation of the Exhibition

Participants appreciate the works included in the exhibition *Good Morning Mr. Orwell 2014*, especially concentrating on Laurie Anderson's *O Superman*, and think of the powers in the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the correct use of power.



활동 내용

3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장애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나갔다. 아이들의 속도에 맞추어 함께 전시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 관해 이야기도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가슴에 뜨거움을 느꼈던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백남준의 다양한 실험 TV 작품을 감상하고 <나만의 실험 TV>를 만드는 시간이었다. 한 장애 학생이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 TV'를 만들었다. 키트에는 없는 리모콘까지 직접 만들고 버튼을 누르면 각자의 사연과 아픔을 지닌 사람들이 치유되는 TV였다. TV에는 노란 리본이 달려있다. 이 학생은 "얼마 전에 큰 사고로 인해 형, 누나들이 하늘나라로 갔다. 내가 너무 미안했다."라고 말하며 이 사고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치유하는 TV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 학생이 만든 '치유 TV'를 통해 바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사는 우리를 반성하게 하였고, 다함께 아픔을 공감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Content of Activity

For three years, we have looked for the ways of communicating with disabled children and teenagers. We watched the exhibition artworks according to their pace, talked about the works and assisted them in expressing their thoughts freely. There is a touching story that we want to share from this program. It was time to see Nam June Paik's diverse experimental TV works and make **My Own Experimental TV**. It is a story of a middle school student with a disability. He made a 'Healing TV' to heal the wounds of the mind. He for himself made a remote control, which was not included in the kit. So when people press a button of it, their sadness and pain can be healed. That TV had a yellow ribbon on it. "A while ago, elder brothers and sisters went to heaven because of a big accident. And I felt so sorry," he said. That's why he made this healing TV to comfort those who got hurt by this accident. This 'healing TV' made us reflect on ourselves, who don't have time to look around us in this busy world, and empathize with their pain all together.



**대중
교육 프로그램**

**Public
Education Program**

Winter Vacation Docenting Program for Kids The Lunar World of Nam June Paik

For 2014 winter vacation, Nam June Paik Art Center holds a special docenting program entitled **The Lunar World of Nam June Paik**. This program targe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brings docents to children's level so that children can make an easier and more interesting approach to the exhibition. In this program in connection with *Gentle Disturbance-Talking Paik*, participants learns about Nam June Paik and explore the works reflecting his artistic thoughts in the exhibition space using activity sheets.

Period January 2 - January 24, 2014, 11:00 - 12:00 (60 min)
 Venue Education room & exhibition space, Nam June Paik Art Center
 Participants Elementary school students (not exceeding 20 people)
 Instructors Hee Jeong Park, Mihyun Lee

Classification	Duration	Contents
Introduction	5 Min	Greetings and introduction of program
Lecture	10 Min	Introduction of Nam June Paik Art Center and a story about artist Nam June Paik
Appreciation of the Exhibition	25 Min	Appreciating the exhibition works using activity sheets
Expression Activity	15 Min	Expressing the work to represent the harmony among humans, nature and machines using stickers included in activity sheets
Sharing	5 Min	Sharing of the work and closing

겨울방학 어린이 특별 도슨팅 프로그램 <달나라 백남준>

백남준아트센터에서는 2014년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어린이 특별 도슨팅 프로그램 <달나라 백남준>을 운영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도슨트를 준비하여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부드러운 교란-백남준을 말하다》전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예술가 백남준에 대해 살펴보고, 활동지를 활용하여 그의 예술적 사유가 잘 담겨있는 작품을 전시장에서 찾아 함께 감상한다.

기간 2014. 1. 2 - 1. 24, 11:00 - 12:00 (60분)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교육실 및 전시장
 대상 초등학생 20명 이하
 강사 박희정, 이미현

구분	시간	내용
소개	5분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강의	10분	백남준아트센터 소개 및 예술가 백남준 이야기
전시감상	25분	활동지를 활용한 전시 작품 감상
표현활동	15분	활동지의 스티커를 이용하여 인간, 자연, 기계의 조화를 표현하기
공유	5분	작품 공유 및 마무리



강의
백남준아트센터와 예술가 백남준에 관한 강의를 통해 백남준의 예술세계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Lecture
This lecture gives an overview of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and the artist Nam June Paik to help the students to understand his art world.



표현활동

활동지의 스티커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백남준이 <TV 정원> 작품에서 보여준 것처럼 인간, 자연, 기계의 조화로운 모습을 상상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Expression Activity

Utilizing the stickers in the activity sheets and a diversity of tools, one imagines the harmony among humans, nature and machines and expresses it in various ways as Paik showed in his work *TV Garden*.

전시감상

어린이 특별 도슨트를 들으며 활동지를 활용하여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Appreciation of the Work

With the help of the special docents for children, participants take a look at Nam June Paik's art world in detail with activity sheets.



공유 및 마무리

각자가 표현한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다.

Sharing and Closing

Participants tell the stories that they expressed, share thoughts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활동 내용

어린이 특별 도슨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어렵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아이들 눈높이에서 함께 생각하며, 사용되는 단어는 아이들과 소통하기에 불편함이 없었다. 전시 작품 중 중요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스티커 활동지를 활용하여 함께 이야기하며 작품을 감상하고,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백남준이 생각했던 인간과 자연, 기계의 조화로운 모습을 상상해보고 나만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보냈다. 자신이 표현한 작품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재미있는 상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조금은 폭넓고 확장된 사고를 하고 즐겁게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시간을 경험하였다.

Content of Activity

Children participating in the Special Docenting Program for Children don't say the word 'difficult'. They didn't find difficulties over the process of the program because the level of the program was appropriate for children and the words used in the program didn't make them feel uncomfortable in communication. By explaining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exhibition works easily and using activity sheets with stickers to arouse children's interest, children could talk to each other, appreciate the works and empathize with Nam June Paik's art world. They spent time imagining the harmony among humans, nature and machines that Nam June Paik envisioned and expressing it in their own diverse ways. This program provided children with an occasion to learn the method of pleasant communication as well as that of expanded thinking, and think of and share the interesting imaginations of others, while sharing their own works and listening to each other.

Since 2009, Nam June Paik Art Center has held the **NJP Creative Summer**, a special education program with multiple contents for summer vacation, in order to promote public understanding and participation. **2014 NJP Creative Summer** consists of the programs to induce participation of a wide range of people, in connection with *Good Morning Mr. Orwell 2014*, an exhibition commemo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Nam June Paik's satellite project *Good Morning Mr. Orwell*.

Period July 17 - August 14, 2014
Venue Education room & seminar room, exhibition space, Nam June Paik Art Center

* Program Schedule

Program	Date & Time	Participants	Contents	Instructors
A Picture Filled with a Book	Aug. 2 (Sat) 10:00 - 12:00	Family (one kid aged 8 - 10+one adult) 10 groups	Appreciating Paik's works and expressing a book review in painting after reading <i>Beauty and Art-What Are They?</i>	Hak Mi Kim Minja Han
Tell Me!	Jul. 29 - Aug. 14 (Mon-Fri) *except for closed days 10:30 - 12:00	20 people aged 8 - 13 per session	A program in connection with Mona Hatoum's <i>So Much I Want to Say</i> including a performance expressing with their body what children want to say against restrictions	Hee Jeong Park Jooyeon Park
Text-Topia	Jul. 30, Aug. 6 (Wed) *serial program 14:00 - 17:00	20 people aged 14 - 19	Creating a text animation work including the predicted images of future society by extracting texts from the exhibition <i>Good Morning Mr. Orwell 2014</i>	Jaewoo Oh Jooyoung Son Hyejoo Son
Conversing with Pictograms	Aug. 7, 14 (Thu) *serial program 14:00 - 16:00	15 adults with a major in art & design	Pictogram creation workshop with artist Boorok Lee	Boorok Lee

백남준아트센터에서는 2009년부터 대중적 이해와 참여를 넓히기 위해 다양한 여름방학 특별 교육 프로그램인 <NJP 크리에이티브 썸머>를 운영하고 있다. <2014 NJP 크리에이티브 썸머>는 백남준의 위성 프로젝트인 <굿모닝 미스터 오웰>의 30주년을 기념한 전시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와 연계하여 다양한 대상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간 2014. 7. 17 - 8. 14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교육실, 세미나실 및 전시장

* 프로그램 일정표

프로그램명	일정	대상	내용	강사
책을 담은 그림	8. 2 토 10:00 - 12:00	가족 (8 - 10세 어린이+성인) 총10팀	「예술이 뭐예요?」를 미리 읽은 후 백남준의 작품을 감상하고 독후감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김학미 한민자
말해줘!	7. 29 - 8. 14 월-금 *휴관일 제외 10:30 - 12:00	8 - 13세 회당 20명	모나 하툼의 작품 <너무나 말하고 싶다> 연계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제약받았던 경험을 몸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 놀이	박희정 박주연
텍스트-토피아	7. 30, 8. 6 수 *연속 프로그램 14:00 - 17:00	14 - 19세 20명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에서 텍스트를 발췌하여 미래 사회를 예견한 모습을 텍스트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제작하기	오재우 손주영 손혜주
픽토그램으로 말 걸기	8. 7, 14 목 *연속 프로그램 14:00 - 16:00	미술 & 디자인 전공 성인 15명	이부록 작가와 함께하는 픽토그램 창작 워크숍	이부록

Children's Program Tell Me!

In **Tell Me!**, a program related to the work *So Much I Want to Say* by Mona Hatoum, who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Good Morning Mr. Orwell 2014*, children deal with the situations in which they are under control and restriction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They share their experiences and situations with each other and conduct a performance expressing with their body what they wanted to say in those situations.

Period July 29 - August 14, 2014, 10:30 - 12:00 (90 min, 12 sessions in total)
Venue Seminar room and exhibition space, Nam June Paik Art Center
Participants Children aged 8 to 13 years (20 children per session)
Instructors Hee Jeong Park, Jooyeon Park

Classification	Duration	Contents
Introduction and Warming-Up	15 Min	- Introduction of program and body exploration activities
Appreciation of the Exhibition	30 Min	- Appreciating the artworks of the exhibition <i>Good Morning Mr. Orwell 2014</i> - A major focus on Mona Hatoum's <i>So Much I Want to Say</i>
Expression Activity	30 Min	- Sharing the experiences of restriction and control in daily life - Expressing the situations of these experiences and what I wanted to say with the body
Sharing	15 Min	- Presentation and sharing of the work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말해줘!>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 참여 작가 모나 하툼의 작품 <너무나 말하고 싶다> 연계 프로그램인 <말해줘!>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제약과 통제 받는 상황을 함께 나누게 된다. 서로의 경험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 상황과 그 상황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몸으로 표현해 보는 퍼포먼스 놀이를 한다.

기간 2014. 7. 29 - 8. 14 10:30 - 12:00 (90분, 총 12회)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세미나실 및 전시장
대상 8 - 13세 어린이, 매회 20명
강사 박희정, 박주연

구분	시간	내용
소개 및 워밍업	15분	- 프로그램 소개 및 신체 탐구 활동
전시감상	30분	-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 작품 감상 - 모나 하툼의 작품 <너무나 말하고 싶다> 집중 감상
표현활동	30분	- 일상생활에서 제약과 통제 받았던 경험 공유하기 - 경험했던 상황과 하고 싶었던 말을 몸으로 표현하기
공유	15분	- 작품 발표 및 공유하기



모나 하툼

<너무나 말하고 싶다>
1983
1채널 비디오, 흑백, 사운드

Mona Hatoum

So Much I Want to Say
1983
1 channel video, B&W, Sound





워밍업, 신체 탐구하기

언어를 제외한 몸으로 자유로운 표현을 하기 위해 머리, 어깨, 다리 등 몸을 다양하게 움직여보며 신체를 탐구해본다. 전시 관람시 유의사항을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며 몸이 언어가 되는 연습을 통해 몸의 자유로운 표현력을 키운다.

Warming-Up, Exploration of the Body

This course takes participants on a journey to explore the body to express freely with their body without a language, while moving their head, shoulder, legs, and more in various ways. Through the practice of making their body become a language by expressing the instructions for appreciation at the museum, participants improve the power of their bodily expression.



전시감상

통제와 감시, 제약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과 언어가 아닌 신체나 움직임을 통해 메시지를 표현한 작품을 중심으로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를 감상한다. 작품 중에 모나 하툼의 작품 <너무나 말하고 싶다>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자신의 경험을 생각해 본다.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통제 받거나 감시당한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생각을 이끌어주며, 이어질 활동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Appreciation of the Work

In this course, participants see the exhibition *Good Morning Mr. Orwell 2014*, concentrating on the artworks dealing with the subjects of control, surveillance and restriction as well as those delivering a message through the body or the movement, not a language. A major focus of this course is Mona Hatoum's work *So Much I Want to Say* and they think of their own experiences. This course leads children to discuss freely about their experiences of being controlled or monitored, and explains the following activities.



표현활동 및 공유

3-5명씩 모둠을 나누고 각 모둠별로 생활 속에서 제약받고 통제받았던 상황이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퍼포먼스로 표현할 상황을 설정하고, 표현할 '상황'과 그 상황에서 '하고 싶었던 말'을 몸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한다. 모든 모둠이 준비를 마치면 각 모둠별 발표를 하고, 나머지 모둠은 어떤 상황인지 맞춰 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활동에 대한 감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Expression Activity and Sharing

Participants are divided into the groups of 3 to 5 and have a talk about the situations or experiences of being controlled and constrained by groups. They create a situation to be expressed as a performance and practise expressing the 'situation' and 'what they wanted to say' in that situation with the body. When all the groups are ready, each group makes a presentation and the other groups make a guess what situation it is. Finally, they take time for sharing their thoughts and feelings with regard to the activities.

활동 내용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기획된 <2014 NJP 크리에이티브 썸머>의 어린이 대상 교육 프로그램 <말해줘!>는 좀 더 자유롭고 적극적인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퍼포먼스 놀이 형태로 진행되었다. 함께 몸을 유연하게 움직이는 시간과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몸으로만 표현하는 시간을 갖고, 전시 감상 후에는 작은 모둠을 구성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는 참여 학생들이 미술관이라는 조금은 낯선 공간에서 자신이 느꼈던 불편한 이야기들(억압이나 제약받았던, 혹은 통제 받았던 이야기)을 전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느슨하게 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무언극 형태의 이야기 전달 방식은 한 사람의 고민이나 상처의 흔적이 아닌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로서 확장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학교와 학원 그리고 또 다른 공간에서 말하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던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2014 NJP 크리에이티브 썸머> <말해줘!> 프로그램이 주는 놀라운 성과는 물리적 결과물이 아닌 과정 그 자체로, 작가 모나하툼이 작품<너무나 말하고 싶다>에서 보여준 긴장감을 동반한 절박한 퍼포먼스 그대로를 떠올리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글_ 교육강사 박희정

Content of Activity

An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Tell Me!**, which belongs to the summer vacation special program **2014 NJP Creative Summer**, was presented in the form of a performance play to induce participation of more liberal and active students. Children had time to move their body with flexibility, to make a sentence and express it only with the body and to tell their stories by groups after watching the exhibition. From these activities, children seemed to feel less reluctant than we expected to talk about uncomfortable stories they experienced (those related to control, restriction or constraint) in a museum, an unfamiliar place to them to a certain degree. Besides, telling a story in the form of mime was helpful in expanding a story to the problem that everybody can empathize with, beyond just somebody's trouble or trace of the pain. Over the process of this program, children shared their heartfelt stories that they wanted to tell but couldn't at school, private institutes and other spaces. The remarkable accomplishment of the program **Tell Me!** under the **2014 NJP Creative Summer** was not a physical outcome, but as itself, it reminded us of the desperate performance accompanied by the tension that artist Mona Hatoum showed in her work *So Much I Want to Say*.
Article_Instructor Hee Jeong Park



Teens Program Text-Topia

As a rebuttal to George Orwell's novel *1984* depicting a dark future in which surveillance and control by mass media became a routine, Nam June Paik said, "You were only half-right" and showed a positive utilization of mass media through art by creating a satellite TV show *Good Morning Mr. Orwell*. Students participating in this program imagine the future and create a text animation work from the texts and images extracted from the artwork. The completed artworks are on display at the lobby of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during the **NJP Creative Summer**.

Period	July 30, August 6, 2014, 14:00 - 17:00 (serial program in two sessions)
Venue	Exhibition space and education room, Nam June Paik Art Center
Participants	20 people aged 14 to 19 years
Instructors	Jaewoo Oh, Jooyoung Son, Heyjoo Son
Docent	Minja Han
Exhibition Period	August 13 - November 16, 2014

Sessions	Classification	Contents
Session 1 Jul. 30	Introduction	Greetings and introduction of program
	Appreciation of the Exhibition	Appreciating the works of the exhibition <i>Good Morning Mr. Orwell 2014</i>
	Lecture	Imagining the future society while investigating futuristic novels and movies
	Conception	Conception of the work by groups
Session 2 Aug. 6	Lecture	Appreciating the works using texts and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 between texts and images
	Expression Activity	Creating an artwork with texts and images by groups
	Presentation	Presentation of the completed work and sharing Display of the work at the lobby of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텍스트-토피아>

백남준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감시와 통제가 일상이 된 어두운 미래를 그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대해 "절반만 맞았다"고 반박하면서, 위성 TV쇼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기획하여 예술을 통한 매스미디어의 긍정적인 사용을 보여주었다. 참가 학생들은 미래를 상상하고 작품으로부터 발췌한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해 텍스트 애니메이션 작품을 제작하고 완성된 작품은 백남준아트센터 로비 공간에서 상영한다.

기간	2014. 7. 30, 8. 6 14:00 - 17:00 (2회 연속 프로그램)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 및 교육실
대상	14 - 19세 청소년, 20명
강사	오재우, 손주영, 손혜주
도슨트	한민자
전시기간	2014. 8. 13 - 11. 16

회차	구분	내용
1차 7. 30	소개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전시감상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 작품 감상
	강의	미래 소설, 영화를 살펴봄과 미래 사회를 상상하기
	발상	모듬별 작품 구상
2차 8. 6	강의	텍스트를 활용한 작품 감상과 텍스트와 이미지에 관해 살펴보기
	표현활동	텍스트와 이미지를 사용하여 모듬별 작품 만들기
	발표	작품 발표 및 공유하기 백남준아트센터 로비에서 상영

전시감상

기술의 발달로 인해 변화된 미래 사회의 모습을 백남준과 조지 오웰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상상했듯이 현대 작가들이 어떻게 미래를 사유하고 예견하는지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 작품 감상을 통해 살펴본다.

Appreciation of the Work

This course explores what the future that contemporary artists think and predict is like as Nam June Paik and George Orwell had a different vision of the future society due to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by investigating the works of the exhibition *Good Morning Mr. Orwell 2014*.



강의 및 작품 구상

미래를 그린 소설과 영화를 살펴보고, 미래를 자유롭게 상상해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각자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어떤 시각으로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발표해본다. 모둠을 나누고 미래 사회에 관해 마음껏 상상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미래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구상해 본다.

Lecture & Conception of the Work

This course helps participants to look into the futuristic novels and movies and to imagine the future as they want. Each one presents the future they dream of and their vision of the future. It gives an opportunity to stretch their imagination, to freely discuss and talk about the future society.



작품 구체화 및 제작

구상한 미래 사회의 모습을 구체화시켜 작품 제작을 시작한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활용한 현대 작가의 작품을 살펴보고 모듬별로 구체화시킨 미래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텍스트를 발췌하고 이미지를 그리거나 촬영하여 작품으로 만들어 나간다.

Materialization and Creation of the Work

Participants materialize their vision of the future society and start creating a work. They investigate the artworks using texts and images by contemporary artists and create an artwork by extracting texts, drawing images, or filming on the basis of the stories about the future society materialized by groups.



공유 및 마무리

완성된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각자의 미래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한다. 완성된 작품은 백남준아트센터 로비에서 상영하여 관람객들이 학생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Sharing and Closing

While watching their completed artworks, participants share their own ideas of the future society. Completed works are on display at the lobby of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for visitors' appreciation.



활동 내용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상상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으로 살아간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가올 미래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백남준과 조지 오웰은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다. 조지 오웰은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그 기술을 이용하여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어두운 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견을 하였고, 백남준은 매스미디어의 긍정적 사용을 보여주며 언어와 문화가 서로 다르지만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과연 우리가 꿈꾸며 상상하는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참여자인 청소년들은 그들만의 무한한 상상력으로 미래를 예견하였다. 함께 살아갈 미래 사회를 구상하고 구체화하여 텍스트와 이미지로 영상 작품을 만들어 나갔다. 자료조사를 하고, 직접 그림을 그리고, 책에서 텍스트를 발췌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며 마치 미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처럼 흥분된 모습을 보였다. 아이들은 함께 상상하고 표현하며 미래를 꿈꾸는 친구이자 협력자가 되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였다.

Content of Activity

In our life, we imagine the future and sometimes we worry about it. Nam June Paik and George Orwell had different visions of the future influenced by technological advances. George Orwell predicted a dark future in which freedom is restricted, suppressed and controlled due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while Nam June Paik predicted a society where people from different languages and cultures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showing a positive utilization of mass media. What will the future society we imagine and dream of look like? Teenagers participating in this program stretched their imagination of the future to the utmost. They visualized and materialized the future society where they will live together and created a video work with texts and images. Over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data, drawing for themselves, extracting the texts form books, and making a story, they seemed to be excited as if they lived in the future. While imagining, expressing and dreaming of the future together, they completed an art work as a friend and a collaborator to each other.



Adult Program
Artist Boorok Lee's Creative Workshop:
Conversing with Pictograms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hosted a creative workshop on pictogram with artist Boorok Lee, who took part in the exhibition *Good Morning Mr. Orwell 2014* and has been involved in society with signs and symbols. In this program, participants draw up pictograms slightly deviating from the meaning of the diagrammed pictogram and recontextualize the existing social context by placing the Warvata stickers in their everyday life.

Period August 7, August 14, 2014, 14:00 - 16:00 (serial program in two sessions)
Venue Exhibition space and education room, Nam June Paik Art Center
Participants 15 adults, with a major in art & design
Instructor Boorok Lee

Sessions	Classification	Contents
Session 1 Aug. 7	Introduction	Introduction of program, presentation of artist's work Introduction of Warvata sticker project and distribution of stickers
	Thinking in Pictogram	Thinking in pictogram Visualizing the concept of pictogram drawing
Session 2 Aug. 14	Presentation of the Project	Pictogram drawing & presentation of Warvata sticker project
	Sharing	Introduction of chain reaction project and closing

성인 대상 프로그램
<이부록 작가 창작 워크숍 :>
픽토그램으로 말 걸기>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전 참여 작가이자 기호와 상징을 통해 사회에 개입해온 이부록 작가와 함께하는 픽토그램 창작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도식화된 픽토그램의 의미를 살짝 비껴가는 픽토그램을 직접 구상해보고, 워바타(Warvata) 스티커를 일상 속에 배치하여 기존 사회적 문맥을 재맥락화 하는 작업을 해보았다.

기간 2014. 8. 7, 8. 14 14:00 - 16:00 (2회 연속 프로그램)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 및 교육실
대상 미술, 디자인 전공 성인 15명
강사 이부록

회차	구분	내용
1차 8. 7	소개	프로그램 소개 및 작가 작품 소개 워바타 스티커 프로젝트 소개 및 스티커 배부
	픽토그램으로 사유하기	픽토그램으로 사유하기 픽토그램 드로잉 콘셉트 구상하기
2차 8. 14	프로젝트 발표	픽토그램 드로잉 & 워바타 스티커 프로젝트 발표
	공유	연쇄반응 프로젝트 소개 및 마무리



작가와 작품 소개

참가자의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작가가 진행해온 작품과 앞으로 진행하게 될 활동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Introduction of Artist and His Artworks

Following participants' self-introduction, the artist introduces his artworks and his completed, on-going and upcoming projects.



픽토그램으로 사유하기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언어로서의 픽토그램 콘셉트를 구상해보는 시간. 우리 사회의 통제를 둘러싼 이슈에 대해 토의하고, 향후 진행할 연대 프로젝트의 목적과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일상과 주변공간에 대한 현장리서치부터 프로젝트 기획, 연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각자 진행하게 될 콘셉트를 고민해본다.

Thinking in Pictogram

Participants think of the concept of the pictogram as a language to save our society. They discuss about the issues of social control and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the future joint project. This course enables participants to consider their own concept to conduct on-site research on ordinary and surrounding spaces, produce a project plan and form a bond in the end.





프로젝트 발표 및 공유

각자 진행한 픽토그램 드로잉과 워바타 스티커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 명씩 발표를 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을 자유롭게 주고받는다. 마지막으로 이번 활동에 대한 감상과 더불어 추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할 연쇄반응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다.

Presentation of the Project and Sharing

Participants make a presentation on their own pictogram drawing and on Warvata sticker project. Each participant presents one by one and gives feedback to each other. Lastly, they have a discussion about the upcoming chain reaction project to be carried out online and offline.



활동 내용

<픽토그램으로 말걸기>는 우리사회의 일상과 주변공간에 대한 현장리서치 프로젝트로 기획되었다. 2014년의 오웰리언의 관점에서, 인간은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 감시-통제의 대상이 되거나, 체제의 부품이 되어 시스템의 집합체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통제를 둘러싼 이슈들에 대해 토의하고 향후 진행하게 될 연대 프로젝트의 목적과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자본과 권력을 동력으로 유지되는 이중사회의 실체와 모호한 정체성 사이에 자아의 존재, 나는 과연 이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하며 인간을 위한 구호(발언)를 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원래 픽토그램은 누구나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의미하는 내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중립적인 형태의 단순화된 심볼로 표현되어 왔다. 이런 도식화된 픽토그램의 의미를 비껴가는 픽토그램에 대한 각자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픽토그램을 제작하여 실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침투할 수 있는지 논의의 장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쟁을 상징화한 워바타 픽토그램 (Warvata pictogram)으로 스티커를 만들어 다양한 해석층에 배송하고 다시 그 ‘인증샷 shot*발사’를 돌려받아 수집해 온 것을, 시스템의 허구와 바깥계의 행동들로 재구성하여, ‘자유’, ‘평화’와 같이 유린되어 얼어붙은 언어Frozen language, 또는 여기에서 권력이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의 언어Earner의 현장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일상 공간 또는 낯선 지역을 여행하면서 마주치는 기존의 기호나 낙서 위에 워바타 스티커를 나란히 배치해 사진으로 찍어 전송함으로써 의미층을 확장시킨 결과물을 서로 공유하였으며, 향후 연대하여 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Content of Activity

Conversing with Pictogram is a project for the on-site research on our ordinary and surrounding spaces. From the Orwellian perspective in 2014, individuals become an object of surveillance-control by a huge system or an assembly of system as a part of the system. This program aims to discuss the issues about social control and share the opinions on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the future joint project. This project starts from the question, "Can I deal with many pending issues including the self-existence between the reality of the dual society maintained by the sources of capital and power and the ambiguous identity, and use a slogan (statement) for humans? Originally, pictogram has been used as a neutral type of simplified symbol to express the content symbolically for anyone to recognize it immediately. This program offers an opportunity to share one's own ideas on the pictogram deviating from the diagrammed pictogram, to create a pictogram and to consider how it can penetrate into our life. In addition, it intends to reach the areas of 'Frozen Language', infringed and frozen like 'freedom', 'peace' and those of 'Earner', who takes power or profits from there by making stickers with Warvata pictogram, which symbolizes a war, distributing them to a broad range of people, collecting their feedback photos, and reconstructing them with the fiction of the system and the acts of outside world. Participants shared the outcomes from expanding the range of meanings by placing Warvata stickers next to the exiting signs or scribbles found in an ordinary space or in a strange place of a journey, and discussed about the upcoming joint project.

Family Program
A Picture Filled with A Book

In this program, family participants appreciate Nam June Paik's works of art and express their thoughts in painting after reading the book *Beauty and Art-What Are They?**

* *Beauty and Art-What Are They?*, Oscar Brenifier, Sangsuri, 2008

Period August 2, 2014, 10:00 - 12:00
Venue Seminar room, Nam June Paik Art Center
Participants 10 family teams including kids aged 8 to 10 years/ one team (one kid + one adult)
Instructors Hak Mi Kim, Minja Han
Exhibition Period August 4 - August 14, 2014

Classification	Duration	Contents
Greetings and Introduction	10 Min	Greetings and introduction of program
Appreciation of the Exhibition	30 Min	Appreciation of Nam June Paik's artworks <i>TV Fish & TV Garden</i>
Conception	10 Min	Thinking of beauty and art
Expression Activity	50 Min	Drawing a reading painting
Sharing and Closing	20 min	Sharing of the work and closing

가족 대상 프로그램
<책을 담은 그림>

백남준 라이브러리가 선정한 도서 「예술이 뭐예요?」*를 미리 읽은 후, 아트센터에서 백남준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그 소감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이다. 완성 작품은 백남준 라이브러리에서 방학 동안 전시한다.

* 「예술이 뭐예요?」, 오스카 브르니피에 글, 상수리, 2008

기간 2014. 8. 2, 10:00 - 12:00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세미나실
대상 8 - 10세 어린이 가족 10팀/ 1팀(어린이 1인+성인 1인으로 구성)
강사 김학미, 한민자
전시기간 2014. 8. 4 - 8. 14

구분	시간	내용
인사 및 소개	10분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전시감상	30분	백남준의 작품 <TV 물고기>, <TV 정원> 감상
발상	10분	아름다움과 예술에 관하여 생각하기
표현활동	50분	독서화 그리기
공유 및 마무리	20분	작품 공유하기와 마무리



프로그램 소개 및 작품감상

백남준의 대표작품 <TV 물고기>와 <TV 정원>을 감상한다.
 『예술이 뭐예요?』 책에 나오는 질문들을 작품 감상에 적용시켜보며,
 아름다움과 예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Introduction of Program and Appreciation of the Work

Participants appreciate *TV Fish* and *TV Garden*, the representative artworks of Nam June Paik. They apply the questions from the book *Beauty and Art-What Are They?* to appreciating the works and take time for thinking of beauty and art.



표현활동

『예술이 뭐예요?』책과 함께 감상한 작품들과 연관시켜 아름다움과 예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의 생각을 발표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 어린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왜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가족별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다양한 재료로 표현해본다. 이때 어린이가 자유롭게 발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보호자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Expression Activity

In this course, participants present their ideas of beauty and art in relation to the artworks they appreciated after reading the book *Beauty and Art-What Are They?*. Participants discuss about what they think beauty is, why it is beautiful and how to express beauty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 by family groups and express their ideas using a variety of materials. Parents assist children in thinking and presenting freely as they want.



공유 및 감상

독서화를 모두 완성하면 활동지에 작품명과 작품 설명을 어린이들이 직접 작성하도록 한다. 한 명씩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며 자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등 작품에 대해 직접 발표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Sharing and Appreciation

When the reading painting is completed, children write the name of the painting and explanations on the activity sheet by themselves. The kids one by one show their work and make a presentation on what beauty is from their viewpoint and how they expressed it.



활동 내용

<책을 담은 그림>은 어린이의 시각에서 정의되는 예술의 의미와 실재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예술이 뭐예요'라는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예술의 속성을 쉽게 설명한 책을 읽고, 각자의 개성에 맞는 답을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 예술의 속성이 어쩌면 어렵고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프로그램은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전시 중인 백남준의 작품 <TV 정원>과 <TV 물고기> 감상의 기회를 통해, 미리 읽고 생각해 보았던 예술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린이들이 책으로 읽고, 현장에서 작품으로 인식한 예술의 개념을 그림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눈높이에 맞는 예술에 대한 소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Content of Activity

The program **A Picture Filled with a Book** aims to express the meaning of art and the reality from a perspective of children. It suggests that the attributes of art might not be difficult and metaphysical, but simple and ordinary through the process of reading a book easily explaining the properties of art that can be discussed from various viewpoints and searching for one's own appropriate answers to the question, 'What is art?'. Besides, it helps participants to concretely recall the definition of art they already read about and thought of through the occasion of appreciating the artworks of Nam June Paik, *TV Garden* and *TV Fish* on display at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This program leads children to express their impressions on the art angled towards them, by reading a book and expressing the concept of art they understood through the artworks they recognized as art on the spot in their paintings.



The First Half of the Year NJP Salon: Art and Time

NJP Salon in the first half of 2014 is intended to approach the art world of Nam June Paik on the subject of 'Art and Time'. This course investigates a wide range of temporalities found in the artworks of contemporary artists including Nam June Paik, who extended the concept of art by adopting time factors to the artwork that had been regarded as spatial arts. In addition, it links music, which is based on time as well as is a starting point of Nam June Paik's art world, to his works and takes participants on a journey to appreciate them.

Period	April 17- May 29, 2014, 10:30 - 12:00 (6 sessions in total including a visit of an outside institute)
Venue	Seminar room, 2nd floor, Nam June Paik Art Center
Participants	30 adults living in Gyeonggi Province and nearby area
Instructors	Manu Park, Kyunghwa Ahn, Sohyun Ahn, Yujean Rhee, Chaeyoung Lee, Sekwon Ahn, Yeohoon Yoon, Seokhwan Huh

상반기 <NJP 살롱: 예술과 시간>

2014년 상반기 <NJP 살롱>은 '예술과 시간'이라는 주제로 백남준의 예술세계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한다. 본 강좌는 공간 예술로 인식되어 온 미술 작품에 시간의 요소를 도입하여 예술의 개념을 확장시킨 백남준의 작품을 비롯해 현대 작가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시간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백남준의 예술세계의 출발점이자 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인 음악을 백남준의 작품과 연결해서 감상하는 시간이 함께 준비되어 있다.

기간	2014. 4. 17 - 5. 29, 10:30 - 12:00 (외부기관 견학 포함 총 6강)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
대상	경기도 및 인근지역 성인 30명
강사	박만우, 안경화, 안소현, 이유진, 이채영, 안세권, 윤여훈, 허석환

Sessions	Courses	Instructors
Session 1 Apr. 17	Nam June Paik's art world: video art	Manu Park (Director, Nam June Paik Art Center)
Session 2 Apr. 24	Tours of the exhibitions <i>From the Horse to Christo & Variations of the Moon</i>	Yujean Rhee, Chaeyoung Lee (Curators, Nam June Paik Art Center)
Session 3 May 8	Artist talk	Sekwon Ahn (Artist)
Session 4 May 15	Time in the contemporary art	Sohyun Ahn (Curator, Nam June Paik Art Center)
Session 5 May 22	Art of time - Exposition of Music -	Kyunghwa Ahn(Head of curatorial dept., Nam June Paik Art Center) Yeohoon Yoon (Cellist), Seokhwan Huh (Violinist)
Session 6 May 29	Exhibitions Tour <i>Shirin Neshat & Jesper Just</i>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Visit of an outside institute

Content of Activity

The exhibition *Variations of the Moon* takes its motif from Nam June Paik's artwork *Moon is the Oldest TV*, which shows the characteristic of time and his thought about nature and art. Newly launched **NJP Salon** is intended to reflect on how temporality became part of contemporary art and to contemplate the art based on variations of time, in line with the subject of the exhibition. The first session deals with the historical moment when Nam June Paik changed the course of history by introducing temporality, which had not been included in the history of visual art through a new medium video. The session of exhibition tour gives participants an opportunity to look back on their busy life and experience the moments of rest, meditation and contemplation through artistic experiences, while watching various forms of works including the changes of time. In the third session, one of the participating artists in the exhibition, Sekwon Ahn gives a lecture on the world of his photographs including the records of time that accumulate. The following session aims to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entire subjects by explor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emporality expressed in contemporary art as well as diverse artworks by contemporary artists. In the fifth session, participants think of music, which is an art based on temporality, investigate the music used in the early performances of Nam June Paik, who also worked as a composer, as well as his performance pieces and play for themselves. John Cage's *4' 33"* playing in Memorabilia where Nam June Paik's studio is located and Nam June Paik's *One for Violin Solo* evoked a lot of emotional resonance. Finally, while watching the exhibitions *Shirin Neshat* and *Jesper Just* by the representative video artists after Nam June Paik, held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participants finalize the entire course on 'art and time'.

회차	강좌명	강사
1 회 4월 17일	백남준의 예술세계: 비디오 아트	박만우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2 회 4월 24일	《말에서 크리스토포까지》, 《달의 변주곡》 전시투어	이유진, 이채영 (백남준아트센터 큐레이터)
3 회 5월 8일	작가와와의 대화	안세권 (작가)
4 회 5월 15일	현대미술 속 시간	안소현 (백남준아트센터 큐레이터)
5 회 5월 22일	시간의 예술 - 음악의 전시 -	안경화 (백남준아트센터 학예팀장) 윤여훈 (첼리스트) 허석환 (바이올리니스트)
6 회 5월 29일	《쉬린 네샷트》, 《에스퍼 유스트》전 관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외부기관 견학

활동 내용

《달의 변주곡》전은 백남준의 대표작 <달은 가장 오래된 TV>가 보여주는 시간의 속성, 자연과 예술에 대한 백남준의 사유를 모티브로 시작되었다. 새롭게 출범한 <NJP 살롱>은 '예술과 시간'이라는 전시 주제에 맞춰 현대예술 속에 어떻게 시간성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돌아보고 시간의 변주에 착안한 예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첫 강좌에서는 시각예술의 역사에서 그동안 담지 못했던 시간성을 백남준이 비디오라는 매체를 처음으로 들여오면서 시각예술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던 역사적 순간에 대한 내용으로 꾸러졌다. 전시 투어를 통해서 시간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은 다양한 형식의 작품 감상을 통해 바쁜 일상을 되돌아보고 예술적 체험을 통해 휴식과 명상, 사유의 순간을 경험해 보고자 하였다. 세 번째 시간에는 전시 참여 작가인 안세권 작가의 강연으로 켜켜이 쌓이는 시간의 기록을 담고 있는 그의 사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네 번째 강좌를 통해서 현대미술 속에 나타난 시간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더불어 현대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사례를 통해 전체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갔다. 다섯 번째 강좌에는 시간을 기반으로 한 예술인 음악에 대해 생각해보고, 작곡가로도 활동했던 백남준의 초기 퍼포먼스들에 쓰인 음악 및 퍼포먼스 작품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연주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남준의 스튜디오가 위치한 메모라빌라에서 올려퍼지는 존 케이지의 <4분 33초>나 백남준의 <하나를 위한 바이올린 솔로> 퍼포먼스는 많은 잔향을 일으켰다. 마지막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쉬린 네샷트》, 《에스퍼 유스트》전 관람을 통해 백남준 이후 비디오 아트의 대표적인 작가들의 전시를 통해 '예술과 시간'에 대한 마무리를 하였다.

**The Second Half of the Year
NJP Salon:
Mass Media and Contemporary Art**

NJP Salon in the second half year of 2014 explores Nam June Paik's art world on the subject of 'Mass Media and Contemporary Art'. This course investigates the art in the era of mass media focusing on the correlation between mass media and contemporary art works including Nam June Paik's works. Moreover, this course closely connected to the exhibition *Good Morning Mr. Orwell 2014* offers an opportunity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Nam June Paik's art and to have a new approach to the artworks on display in the exhibition.

Period	October 16 - November 20, 2014, 10:30 - 12:00 (6 sessions in total including a visit of an outside institute)
Venue	Seminar room, 2nd floor, Nam June Paik Art Center
Participants	30 adults living in Gyeonggi Province and nearby area
Instructors	Manu Park, Sooyoung Lee, Chaeyoung Lee, Taeyun Kim & Jihyun Yoon, Kanghyun Ahn

**하반기
<NJP 살롱:
매스미디어와 현대미술>**

2014년 하반기 <NJP 살롱>은 '매스미디어와 현대미술'이라는 주제로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다루고자 한다. 본 강좌는 백남준의 작품을 비롯한 다양한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매스미디어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대중매체 시대의 예술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또한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와의 연계성을 높인 이번 강좌를 통해 백남준의 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을 새롭게 감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간	2014. 10. 16 - 11. 20, 10:30 - 12:00 (외부기관 견학 포함 총 6강)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
대상	경기도 및 인근지역 성인 30명
강사	박만우, 이수영, 이체영, 김태윤&윤지현, 안강현

Sessions	Courses	Instructors
Session 1 Oct. 16	Nam June Paik's art world: video art	Sohyun Ahn (Curator, Nam June Paik Art Center)
Session 2 Oct. 23	<i>Good Morning Mr. Orwell 2014</i> exhibition tour and talk with a curator	Sooyoung Lee (Curator, Nam June Paik Art Center)
Session 3 Oct. 30	Mass media and contemporary art	Chaeyoung Lee (Curator, Nam June Paik Art Center)
Session 4 Nov. 6	Artist talk <i>Hello, World!</i>	Taeyun Kim & Jihyun Yoon (Artists)
Session 5 Nov. 13	Workshop with an artist "Big Brother is Watching You"	Kanghyun Ahn (Artist)
Session 6 Nov. 20	Exhibition Tour <i>Media City Seoul 2014: Ghosts, Spies, and Grandmothers</i> , SeMA	Visit of an outside institute

Content of Activity

The motif of the salon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2014 is the dark and bright sides of telecommunication and mass media, covered in *Good Morning Mr. Orwell 2014*, an exhibition commemo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Nam June Paik's satellite show *Good Morning Mr. Orwell*. In the first session, video work of Nam June Paik, who believed a possibility of two-way communication through the new media, satellites, while avoiding one-way communication, along with his satellite project are introduced. The second session offers an opportunity to compare the perspectives of George Orwell and Nam June Paik through the exhibition tour with a curator. The following session focuses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mass media and various cases of their influences on contemporary art. In the fourth session, artists Taeyun Kim and Jihyun Yoon give a lecture on our attitudes in accepting new media. Then, in artist Kanghyun Ahn's workshop titled "Big Brother is Watching You", participants discuss about the way of expressing emotions with images, talking to each other using emoticons through the SNS prior to class, and they compare how much we can perceive and express our emotions with languages and gestures in class. Lastly, 2014 **NJP Salon** comes to an end with the exhibition *Media city Seoul 2014: Ghosts, Spies, and Grandmothers* at SeMA.

회차	강좌명	강사
1 회 10월 16일	백남준의 예술세계 : 비디오 아트	안소현 (백남준아트센터 큐레이터)
2 회 10월 23일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 투어 및 큐레이터와의 대화	이수영 (백남준아트센터 큐레이터)
3 회 10월 30일	매스미디어와 현대미술	이채영 (백남준아트센터 큐레이터)
4 회 11월 6일	작가와의 대화 <헬로, 월드!>	김태윤&윤지현 (작가)
5 회 11월 13일	작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안강현 (작가)
6 회 11월 20일	《미디어시티서울:귀신, 간첩, 할머니》전 관람 서울시립미술관	외부기관 견학

활동 내용

2014년은 백남준이 위성소인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기획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전시인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에서 다루고 있는 원격 통신과 매스미디어의 명암을 주제로 하반기 살롱을 진행하게 되었다. 첫 강좌에서는 일방향성 커뮤니케이션을 지양하고 위성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백남준의 위성 프로젝트를 비롯한 비디오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큐레이터 전시 투어를 통해 조지 오웰의 관점과 백남준의 관점을 직접 작품을 보고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강연에서는 매스미디어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더불어 현대 미술 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네 번째 시간에는 전시 참여 작가인 김태윤과 윤지현 작가의 강연을 통해 새로운 미디어를 수용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안강현 작가와 함께하는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이모티콘으로 사전에 대화를 나누며 감정을 이미지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실제 수업에서는 우리가 감정을 말과 제스처로 얼마나 인지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시티서울:귀신, 간첩, 할머니》전을 마지막으로 2014년 <NJP 살롱>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Education for Volunteer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Volunteer education program in the first half of 2014 offers courses to help participants to understand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and Paik's art world as well as to be qualified as a museum volunteer. Participants will have an opportunity to perform a role as a museum volunteer through this education program.

Period May 10(Sat) - May 24(Sat), 2014, 10:30 - 12:00
 Venue Seminar room, 2nd floor & exhibition space, Nam June Paik Art Center
 Target Participants 2014 cultural volunteers
 Instructors Kyunghwa Ahn, Sohyun Ahn, Seohyun Kim, Eunju Park

Sessions	Courses	Instructors
Session 1 May 10	Introduction of Nam June Paik Art Center	Kyunghwa Ahn (Head of curatorial dept., Nam June Paik Art Center)
Session 2 May 17	Nam June Paik's art world	Sohyun Ahn (Curator, Nam June Paik Art Center)
Session 6 May 24	Roles of cultural volunteers Exhibition tour and safety rules for artworks	Seohyun Kim (Educator, Nam June Paik Art Center) Eunju Park (Professional docent, Nam June Paik Art Center)

상반기 자원봉사자 교육

2014년 상반기 자원봉사자 교육은 백남준아트센터와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이해하여 미술관 자원봉사자로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였다. 교육을 통해 미술관에서의 자원봉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기간 2014. 5. 10 (토) - 5. 24 (토) 10:30 - 12:00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 및 전시장
 대상 2014년 문화자원봉사 지원자
 강사 안경화, 안소현, 김서현, 박은주

회차	강좌명	강사
1 회 5월 10일	백남준아트센터 기관 소개	안경화 (백남준아트센터 학예팀장)
2 회 5월 17일	백남준의 예술 세계	안소현 (백남준아트센터 큐레이터)
6 회 5월 24일	문화자원봉사자의 역할 전시투어 및 작품별 안전 유의사항	김서현 (백남준아트센터 에듀케이터) 박은주 (백남준아트센터 전문도슨트)

Education for Cultural Volunteers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The education program for cultural volunteers and docent volunteers in the second half of 2014 consists of a variety of courses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art world of Nam June Paik. It provides a variety of on-site practical education including the roles of museum volunteers and docent methodology, and some of the courses are open to the public in order to share the opportunity for exploring Nam June Paik's art world.

Period	October 18(Sat) - December 20(Sat), 10:30 - 12:00
Venue	Seminar room, 2nd floor & exhibition space, Nam June Paik Art Center
Participants	Cultural volunteers, docent volunteers
Instructors	Kyunghwa Ahn, Sohyun Ahn, Chaeyoung Lee(curator), Yujean Rhee, Sooyoung Lee, Haeju Kim, Hokyung Hwang, Chaeyoung Lee(coordinator), Eunju Park

하반기 문화자원봉사자 교육

2014년 하반기 문화자원봉사자(지킴이), 도슨트 자원봉사자 교육은 백남준의 예술세계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강의로 구성되었다. 미술관에서의 자원봉사자의 역할, 도슨트 방법론 등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기 위한 실무교육이 함께 진행되며, 일부 강연은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백남준 예술세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다.

기간	2014. 10. 18 (토) - 12. 20 (토) 10:30 - 12:00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 및 전시장
대상	문화자원봉사자, 도슨트 자원봉사자
강사	안경화, 안소현, 이채영(큐레이터), 이유진, 이수영, 김해주, 황호경, 이채영(코디네이터), 박은주

Sessions	Courses	Instructors
Session 1 Oct. 18	Nam June Paik's life and art Introduction of Nam June Paik Art Center	Kyunghwa Ahn (Head of curatorial dept., Nam June Paik Art Center)
Session 2 Oct. 25	Nam June Paik's life and art I	Yujean Rhee (Curator, Nam June Paik Art Center)
Session 3 Nov. 1	Nam June Paik's life and art II	Sooyoung Lee (Curator, Nam June Paik Art Center)
Session 4 Nov. 8	Nam June Paik and new generation: Introduction of Nam June Paik Art Center Prize	Chaeyoung Lee (Curator, Nam June Paik Art Center)
Session 5 Nov. 15	Special exhibition tour with a curator	Sohyun Ahn (Curator, Nam June Paik Art Center)
Session 6 Nov. 22	Young Korean artists	Haeju Kim (Independent curator)
Session 7 Nov. 29	Roles of museum docent	Hokyung Hwang (Professional docent,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ssion 8 Dec. 6	Docent methodology and actual practice I	Sohyun Ahn (Curator, Nam June Paik Art Center) Chaeyoung Lee (Coordinator, Nam June Paik Art Center) Eunju Park (Professional docent, Nam June Paik Art Center)
Session 9 Dec. 13	Docent methodology and actual practice II	Sohyun Ahn (Curator, Nam June Paik Art Center) Chaeyoung Lee (Coordinator, Nam June Paik Art Center) Eunju Park (Professional docent, Nam June Paik Art Center)
Session 10 Dec. 8 - 19	Rehearsal	Chaeyoung Lee (Coordinator, Nam June Paik Art Center) Eunju Park (Professional docent, Nam June Paik Art Center)
Session 11 Dec. 20	Completion ceremony for volunteer education	

회차	강좌명	강사
1 회 10월 18일	백남준의 삶과 예술 백남준아트센터 소개	안경화 (백남준아트센터 학예팀장)
2 회 10월 25일	백남준의 삶과 예술 I	이유진 (백남준아트센터 큐레이터)
3 회 11월 1일	백남준의 삶과 예술 II	이수영 (백남준아트센터 큐레이터)
4 회 11월 8일	백남준과 뉴 제너레이션: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소개	이채영 (백남준아트센터 큐레이터)
5 회 11월 15일	특별전 큐레이터 투어	안소현 (백남준아트센터 큐레이터)
6 회 11월 22일	한국의 젊은 아티스트	김해주 (독립 큐레이터)
7 회 11월 29일	미술관 도슨트의 역할	황호경 (국립현대미술관 전문해설사)
8 회 12월 6일	도슨트 방법론 및 실전 연습 I	안소현 (백남준아트센터 큐레이터) 이채영 (백남준아트센터 큐레이터) 박은주 (백남준아트센터 전문도슨트)
9 회 12월 13일	도슨트 방법론 및 실전 연습 II	안소현 (백남준아트센터 큐레이터) 이채영 (백남준아트센터 큐레이터) 박은주 (백남준아트센터 전문도슨트)
10 회 12월 8-19일	리허설	이채영 (백남준아트센터 큐레이터) 박은주 (백남준아트센터 전문도슨트)
11 회 12월 20일	자원봉사자 교육 수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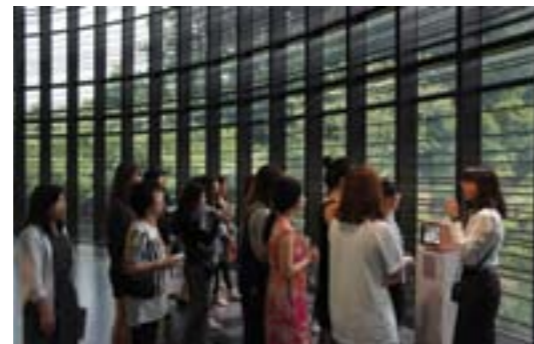


활동 내용

2014년 문화자원봉사자 교육은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이라는 아트센터의 이념, 즉 백남준을 기념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예술세계를 계승하는 차세대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이념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백남준아트센터의 기본 방향과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일별한 후,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의 선발기준과 후보 및 수상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보면서, 백남준의 예술세계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젊은 작가들과 참신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독립기획자를 초청하여 최근 한국미술의 동향과 신진작가들의 재기발랄한 작업들을 감상하는 기회를 통해 현대미술의 최전선에 대해 익히는 자리가 되었다. 아울러 국립현대미술관의 전문해설사를 초청하여 타기관의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용을 듣고 비교하는 기회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을 좀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Content of Activity

2014 Cultural volunteer education is intended to not only commemorate both Nam June Paik and the concept of the Art Center, which is "the house where Nam June Paik lives for a long time", but also become a platform to support free and creative activities of the next generation artists succeeding his art world. This program provided participants with the opportunities to take a look at the objective of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and Paik's art world and to see how his art world has extended, while investigating the criteria of selection of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Prize and the artworks of applicants as well as those of prize winners. Besides, an independent curator planning an original project with young artists told a story of the front line of contemporary art, while introducing brilliant artworks of rising artists as well as the recent trend of Korean art. In addition, this program searched for the possibility of enriching the contents of volunteer activities through comparison with those of different institutes by inviting a professional docent working for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토요문화학교

**Saturday
Cultural Schools**

School for the Paperless Society

Nam June Paik Art Center's Saturday Cultural Schools program **School for the Paperless Society**, derived from Nam June Paik's paper entitled *Expanded Education for the Paperless Society*, is a variety of media arts workshop focusing on the artworks of Nam June Paik. The purpose of this multiple fusion art program is to awaken the emotions and imagination of children and teenagers, and to think of the future actively by making them become more familiar with Paik's art world which seems somewhat difficult.

Period March 15(Sat) - November 29(Sat), 2014, 10:00 - 13:00
 Venue Education room and exhibition space, Nam June Paik Art Center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학교

백남준아트센터의 토요문화학교인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학교>는 백남준이 작성한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확장된 교육」(1968)이라는 논문에서 차용하여 기획되었으며, 백남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미디어 창작워크숍이다. 이를 통해 다소 어렵다고 느껴지는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하게 하여 어린이·청소년의 감성을 깨우고 상상력을 키워 미래를 적극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융복합의 예술 프로그램이다.

기간 2014. 3. 15 (토) - 11. 29 (토) 10:00 - 13:00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교육실 및 전시장

Program	Period	Participants	Contents	Instructors
Lesson 1 Suite 031	Mar. 15 - Apr. 5 (4 weeks)	15 - 19 yrs 20 people	Through Nam June Paik's work <i>Suite 212</i> , participants understand electronic collage technique, observe the surrounding environments using this method and create a witty video collage.	Jaewoo Oh Jooyoung Son Hyewon Kim
Lesson 2 Making a Net	May 3 - 24 (4 weeks)	Family teams wi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Teams of 2, 8 teams per session	Experience of family communication through spinning! Sohee Cho's work <i>...where...</i> , displayed in the exhibition <i>Variations of the Moon</i> , weaves a space by making stitches with light and flexible threads used in our daily life. The time of family that is shared, entangled and untangled like woven threads is expressed in the space as an artwork.	Sohee Cho Hak Mi Kim Minja Han Sora Park
Lesson 3 Be a NJP Docent!	Jul. 12 - Aug. 16 (6 weeks)	17 - 19 yrs 18 people	Docent education program intended to explain the works exhibited in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by reinterpreting them with teenagers' language and emotions * Becoming a one day volunteer docent during summer vacation	Kanghyun Ahn Sohyun Ahn Hee Jeong Park Seung Hoon Dong Heejin Kim
Lesson 4 Sound Décollage - Forest Related with Sound	Sep. 13 - Oct. 4 (4 weeks)	11 - 15 yrs 13 people	Participants go to the forest near the Art Center, observe the sound of nature, make an electronic insect instrument based on it and then go back to the forest to play it. They appreciate the scenery whose sound is changed by adding the sound of instrument to that of nature.	Jiyeon Kim In Sook Bae Gang il Yi Hee Jeong Park
Lesson 5 Good Morning Mr. Paik	Nov. 8 - 29 (4 weeks)	8 - 13 yrs 20 people	Participants watch Nam June Paik's artwork <i>Good Morning Mr. Orwell</i> and reconstruct the satellite project that Paik carried out 30 years ago utilizing simple media. They produce a live performance and present it in a real-time live show.	Jaewoo Oh Jooyoung Son Hyejoo Son Choonyoung Lee Hee Jeong Park

프로그램명	일정	대상	내용	강사
1 강 모음곡 031	3.15 - 4.5 (4주)	15~19세 20명	백남준의 작품 <모음곡 212>를 통해 전자 콜라주 창작기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관찰하고 재치있는 영상 콜라주 만들기	오재우 손주영 김혜원
2 강 그를 짓기	5.3 - 24 (4주)	초등학생 가족대상 2인 1팀, 회당 8팀	실갓기 행위를 통해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 경험하기 《달의 번주곡》에 참여한 조소희 작가 작품 <...어디...>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가볍고 유연한 실로 한 땀 한 땀 엮어서 공간을 직조해가는 작품이다. 흐르는 시간을 함께하고, 짜인 실처럼 얽히기도 풀리기도 하며 살아가는 가족의 시간이 공간 안에서 만나 작품으로 표현되는 프로그램	조소희 김학미 한민자 박소라
3 강 도전! NJP 도슨트	7.12 - 8.16 (6주)	17 - 19세 18명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전시되는 작품을 청소년의 언어와 감성으로 재해석 하여 관람객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도슨트 교육 프로그램 * 여름방학 기간에 도슨트가 되어 1일 자원봉사 하기	안강현 안소현 박희정 동승훈 김희진
4 강 소리 데콜라주 - 소리로 덧칠한 숲	9.13 - 10.4 (4주)	11 - 15세 13명	미술관 인근 숲으로 나가 자연의 소리를 관찰하고, 이를 본 뜬 전자 곤충 악기를 직접 제작한 후 다시 숲으로 나가 연주를 한다. 자연의 소리에 제작한 악기의 소리를 덧칠하여 소리가 변화된 풍경을 감상하고 관찰하는 프로그램	김지연 배인숙 이강일 박희정
5 강 굿모닝 미스터 백	11.8 - 11.29 (4주)	8 - 13세 20명	백남준의 작품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감상하고 30년 전 백남준이 실행하였던 위성 프로젝트를 간단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재구성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참여 학생들은 생중계될 공연 등을 기획하고 이를 실시간 라이브 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	오재우 손주영 손혜주 이춘영 박희정

Content of Activity

School for the Paperless Society, a Saturday Cultural Schools program hosted by Nam June Paik Art Center, is inspired by *Expanded Education for the Paperless Society*, a paper that Paik wrote in 1968 funded by the Rockefeller Foundation. This year is the 3rd year of the program **School for the Paperless Society** reflecting the art world of Nam June Paik, who believe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and media would exert their influence on a range of educational environments. This year, it is composed of five sessions in total in order to explore the method of communication in art and to have an extended artistic thought by investigating, reinterpreting and reconstructing Nam June Paik's world of art.

In the first session **Suite 031**, participants saw the environments very familiar to them from a different angle and created a video collage by collecting sounds and extracting texts. In the second session **Making a Net**, family members spent time together with their heart open to each other, while weaving the thread, a light and trivial object used in our everyday life. For them, it was an opportunity to communicate and heal in art by expressing the time of family, who shares time and space together while being tangled and untangled like a woven thread, into the space. When it comes to the third session **Be a NJP Docent!**, for teenagers living in the rapidly changing world, the experience of speeding down and observing themselves in their routine was unfamiliar but meaningful to them. It helped them to see and hear the things they couldn't see and hear in the past and discover something new due to the difference of speed. It also affected their appreciation of the artwork and communication with others. Based on this experience, they discovered their own way of communication in the relations between artworks and myself, artworks and visitors and visitors and myself as Nam June Paik communicated while narrowing the gap among different elements. In the fourth session **Sound Décollage–Forest Recoated with Sound**, participants made an electronic insect instrument responding to the light by soldering on the PCB board, brought the instrument to the forest and added the electronic sound to that of nature. In the fifth session **Good Morning Mr. Paik**, a program reconstructing Nam June Paik's satellite project *Good Morning Mr. Orwell*, children divided into two groups put their heads together to create a performance to be presented in a live show, while sharing the roles and producing it. In this process, they were able to feel the pleasure of collaboration and of mutual communication as well as a sense of accomplishment by fulfilling their role.

While living in the rapidly changing and overflowing media era, children and teenagers, who explored the art world of Nam June Paik through the Saturday Cultural Schools program, were able to take a look around slowly and listen to their environments with all their senses open, and think of the ways of viewing and utilizing the familiar media that they were accustomed to from a new perspective. As Nam June Paik collaborated with people from a variety of fields, they became considerate and caring friends as well as facilitators to each other throughout the process of the program.

활동 내용

백남준아트센터 토요문화학교인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학교>는 백남준이 1968년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확장된 교육」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기술과 미디어의 발달이 다양한 교육환경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반영한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학교>는 올해로 3년째 진행 중이다. 올해는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살펴보고 이를 재해석하여 재구성해봄으로써 서로 예술로 소통하는 방법을 탐색하고 확장된 예술적 사고를 하고자 총 5강의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1강 <모음곡 031>에서는 내게 익숙한 주변 환경을 낯설게 바라보고 이미지를 영상에 담고, 소리를 수집하고, 텍스트를 발췌하여 영상 콜라주를 제작하였다. 가족 프로그램인 2강 <그물 짓기>에서는 가족이 서로의 속내를 이야기하며 일상에서 사용하는 가볍고 미미한 존재인 실을 짜면서 시간을 함께 공유하였다. 짜인 실처럼 얽히기도 풀리기도 하며 함께 시공간을 공유하는 가족의 시간을 공간으로 표현하면서 예술로 소통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사는 아이들은 3강 <도전! NJP 도슨트>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에서의 속도를 줄이며, 스스로를 관찰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 시간은 조금은 낯설지만 의미 있게 다가왔다. 아이들이 경험한 속도의 차이를 통해 그동안 보지 못 했던 것을 보게 되었고, 듣지 못 했던 것을 듣게 되었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으로 백남준이 이질적인 요소들의 간극을 좁히며 소통했던 것처럼 아이들도 작품과 나, 작품과 관람객, 관람객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각자의 방법을 찾아나갔다. 4강 <소리 데콜라주-소리로 덧칠한 숲>에서는 PCB기판에 직접 납땜 작업을 하며 빛에 반응하는 전자곤충악기를 제작하여 악기를 들고 숲으로 나가 자연의 소리에 전자 소리를 덧칠해 보았다. 백남준의 위성프로젝트인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재구성해보는 5강 <굿모닝 미스터 백>에서는 두 모둠으로 나누어 각자 라이브 쇼를 할 공연을 머리를 맞대어 기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공연을 함께 만들어 나갔다.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서로 협업의 즐거움과 자신의 역할을 해냈다는 성취감, 그리고 함께 서로 소통하는 기쁨도 느낄 수 있었다.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살펴본 아이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넘쳐나는 미디어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모든 감각을 열어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고 자신의 환경에 귀 기울이고 익숙했던 미디어를 새롭게 바라보고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백남준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력하였던 것처럼 아이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는 친구가 되었고 서로의 조력자가 되어 프로그램을 함께 완성해 나갔다.





4강 소리 데콜라주 - 소리로 덧칠한 숲 / Lesson 4 Sound Décollage - Forest Recoated with Sound



5강 굿모닝 미스터 백 / Lesson 5 Good Morning Mr. Paik



프로그램을 마치며
간담회
강사소개
연혁

Epilogue
Forum
Instructors
History

Time Made Together

Mihyun Lee

Educator, Nam June Paik Art Center

Nam June Paik Art Center offers education programs in which a broad spectrum of people from kids to adults and those visiting the museum for the first time to experts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rough art, in order to popularize as well as illuminate Nam June Paik's thoughts and his art world. Our programs have been carried out through the process of questioning and answering from the curiosity about the experimental attitudes that Paik showed through his artworks, and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During the year 2014, we also had opportunities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 with a variety of programs under the big title of **School for the Paperless Society**, and it is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school-related education program, public education program and **Saturday Cultural Schools**. First, school-related education programs which include students group program, youth career exploration program and workshops for teachers, were given on weekdays in conjunction with the exhibition held by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Through the students group education program, elementary ·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in groups of school classes or clubs had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artworks by contemporary artists as well as the art world of Nam June Paik, and to express their ideas while taking a course, appreciating the artworks from the exhibition and doing expression activities. Youth career exploration program was aimed at teenagers who want to know about the space of museum and the jobs it provides. In addition, workshops for teachers were held to introduce the exhibitions and education programs offered by Nam June Paik Art Center and think of the ways of applying Nam June Paik's art world to the school curriculum together with elementary, middle & high school teachers.

Second, the public education program is comprised of the four following programs. **Special Docenting Program for Children**, specially designed for children in their winter vacation, intends to appreciate the artworks, catering to children's level. **NJP Creative Summer**, a summer vacation special program, brings together a wide range of people from kids to adults and aims

함께 만든 시간

이미현

백남준아트센터 에듀케이터

백남준아트센터는 백남준의 사유와 예술세계를 조명하고 이를 대중화하기 위해 어린이부터 성인, 미술관을 처음 찾는 사람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예술로 소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백남준이 작품을 통해 보여준 실험적인 태도에 관한 궁금증으로 질문과 답을 하고 서로 소통하며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 나갔다.

2014년 한 해도 <중이 없는 사회를 위한 학교>라는 큰 타이틀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학교연계 교육 프로그램과 대중 교육 프로그램, 토요문화학교로 운영되었다. 첫 번째 학교연계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학생단체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 교사 초청 워크숍이 있으며, 백남준아트센터의 전시와 연계하여 학기 중 평일에 진행되었다. 학생단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학급단위 또는 동아리 학생들이 함께 강의를 듣고, 전시 작품을 감상하고, 표현활동을 하면서 백남준의 예술세계와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을 공유하였다. 또한 미술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미술관이라는 공간과 직업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백남준아트센터의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교과과정 안에서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적용시킬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자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위한 교사 초청 워크숍이 운영되었다.

두 번째 대중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특별히 준비된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하는 <어린이 특별 도슨팅 프로그램>과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대상과 함께 예술로 소통하고자 기획된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NJP 크리에이티브 썸머>가 운영되었다. 그리고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궁금해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성인 대상의 문화예술강좌 <NJP 살롱>과 전시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3년째 진행 중인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워크숍 <토요문화학교>가 어린이,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rough art. Besides, **NJP Salon** targets adults who are curious about and want to learn the art world of Nam June Paik and **Volunteer Education** is for those who want to play the role of a mediator between the exhibition and audience.

Lastly, **Saturday Cultural Schools**, a program for kids, teenagers and families with a major focus on the exploration of Nam June Paik's art world, has been running for three years since 2012, when the five-day work week system was implemented. Not the outcomes, but the whole process made and shared by all participants from the beginning brought a little change. One of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one of the **Saturday Cultural Schools** programs **Be a NJP Docent!** said in the interview, "When I took a look at the surroundings at lower speed, I could discover something new. In this way, I realized that I can see something new if I slow down the pace of everyday life and have time to look around." While seeing the kids who experienced changes of their thoughts as well as themselves in the process of the program, we were motivated to look back on this year's education programs and think of the future direction.

Students who had visited the Art Center for their school class revisited the museum for themselves with an interest in the program, parents who had taken an arts and culture course for adults recommended a program to their kids, and an instructor who had led a students group program attended a family program with her kids. It was possible because a two-way communication was formed in the process that participants kept asking questions and talking to each other due to the extension of their curiosity about Nam June Paik's art world. Museum education program intended to stimulate people's curiosity about art, to think and to communicate, beyond the one-off education making up for the lack of leisure activities and public education, and accordingly enabled us to envision the future of the education program by the Art Center. However, there is not always a bright side to running the education program. There were unexpected circumstances as well to be expected in the course of the program. Museum is not a place to fill up what is lacking in public education, but it plans and runs the exhibitions and education based on its own identity. But unexpectedly, there are sometimes cases that we are asked to organize an education program or to run a program without a reservation in advance due to the changes of public education curriculum. The experiences of these diverse situations gave us a chance to deepen our thoughts of the future direction of the education program by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2014 education programs are completed by all those who shared and communicated the fun and interest they found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program with family, friends and strangers.

백남준아트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은 결과물 중심이 아닌 첫 만남부터 마지막까지 시간을 함께 공유하며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과정안에서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였다. 토요문화학교 <도전! NJP 도슨트>에 참여하였던 학생은 인터뷰에서 "천천히 속도를 늦춰 주변을 관찰하다 보니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 그렇게 우리 일상의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관찰하면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어." 라고 이야기 하였다. 프로그램 안에서 나의 모습과 생각이 변화됨을 경험한 아이들의 고백을 통해 올 한해의 교육 프로그램을 되감아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계하는 시간이 되었다.

학교 수업으로 아트센터를 찾았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껴 스스로 미술관을 다시 찾았고, 성인 문화예술강좌에서 교육을 받았던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학생단체 프로그램 인솔교사로 참여했던 선생님이 자신의 아이와 가족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백남준의 예술세계에 대한 공금증이 확장되어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루어졌기에 가능하였다.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이 여가활동, 공교육의 부족한 면을 채우는 일회성의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예술에 대한 공금증을 확장시키고 사고하며 소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아트센터 교육 프로그램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면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미술관은 단순히 공교육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기능하는 곳이 아니며 고유한 정체성을 지니고 전시와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그러나 간혹 공교육의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미술관에 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하거나 예약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달라는 경우 등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겪으며 보낸 시간은 백남준아트센터가 앞으로 나아갈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방향성을 더 깊게 고민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2014년 한 해는 프로그램 참여자 모두가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느낀바를 가족과 지인, 혹은 낯선 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며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2014 Nam June Paik Art Center Education Program Forum

Date	November 12, 2014 14:00 - 16:00	
Venue	Education room at Nam June Paik Art Center	
Participants	Instructors	Youngkyung Kwon, Jiyeon Kim, Hee Jeong Park
	Curators	Sohyun Ahn, Yujean Rhee
	Educators	Mihyun Lee, Chaeyoung Lee

Yujean Rhee —

Today, we hold a forum to take a look at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program **School for the Paperless Society** run by Nam June Paik Art Center during the year 2014 and to discuss about the future direction with art education instructors, education curators and educators. It has been 6 years since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was founded. And the Art Center has established a framework of museum education program and has offered programs approximately for 3 years. In this sense, this forum is going to begin with the discussion about the necessity of museum art education outside of school. I'd like to listen to the educator Mihyun Lee first, who has been involved in the program **School for the Paperless Society** since its beginning.

Mihyun Lee —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Be a NJP Docent!** program said, “Artworks become only a hobby of the artist if audiences don’t watch them. So we learned that building relations in which one can feel and accept the artworks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s important.” This will be the education the museums can and need to pursue.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test-free semester, we sometimes receive specific requests for opening a career experience

program for its test operation from some schools. However, it is not desirable for museum education to lose its identity and only support public education.

Yujean Rhee —

Through the education programs, Nam June Paik Art Center has tried to focus on the result or the process of reaching an agreement by admitting different perspectives and collaborating, while inheriting the spirit of Nam June Paik. As a matter of fact, however, the more group programs we run, the more limitations we feel. Schools send their students to the center to help them to have a good grounding in art and culture, but there is a limit to making a result that schools expect. I'd like to hear what the instructors in charge of the program think of this.

Hee Jeong Park —

Many of the teachers sending their students to the center want the museum to supplement the parts that school couldn't fill up. Besides, they expect the results to be of high quality. But in my opinion, the process is more important than the physical result as far as museum education is concerned. I hope for the education through art rather than the education for art. School teachers tend to complain when there is no

2014 백남준아트센터 교육 프로그램 간담회

일시	2014년 11월 12일 14:00-16:00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교육실	
참여자	강사	권영경, 김지연, 박희정
	큐레이터	안소현, 이유진
	에듀케이터	이미현, 이채영

이유진 —

오늘 이 자리는 2014년 한 해 동안 운영해온 백남준아트센터 교육 프로그램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학교> 내용을 정리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한 간담회로, 예술교육 강사, 교육 큐레이터, 에듀케이터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백남준아트센터가 설립된 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아트센터에서 본격적으로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의 틀을 갖추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지도 3년이 되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질문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미술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학교> 프로그램 초기부터 관여해오신 이미현 에듀케이터의 이야기부터 들었으면 합니다.

이미현 —

이번에 <도전! NJP 도슨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작품을 관객들이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작가 본인의 취미활동일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작품을 느끼고 받아들이며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미술관이 할 수 있는, 해야 할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시범학교로부터 시범운영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등의 구체적인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술관 교육이 그 고유의 정체성을 잃고 공교육을 뒷받침하는 교육에만 머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진 —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백남준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관점들을 인정하고 협력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 내지 과정을 만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할수록 한계를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에서는 문화 예술적 소양을 키우기 위해 학생들을 센터에 보내지만, 사실 짧은 시간 동안 학교에서 원하는 결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신 강사 분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박희정 —

학생들을 센터로 보내시는 학교 선생님들 중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미처 채워주지 못했던 부분을 미술관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구체적인 결과물로 완성도 있게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술관의 교육은 물리적인 결과물보다도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을 위한 교육보다는 예술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 불만을 표시하지만 학생들이 미술관 안에서 새로운 경험이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것 역시 중요한 교육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던 것을 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백남준선생님의 생각을

visible result right now, but helping students to have new experiences or thoughts in the museum will be also a good educational direction they should follow. Moreover, it is also a way of putting into practice the thoughts of Nam June Paik, wh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doing and seeing something that others didn't do and see and discovering a new meaning. In this context, the education shouldn't be evaluated only with the criteria, 'How many students answered the questions and how actively they wrote down their ideas on the activity sheets.' Even if they didn't express through the presentation or the activity sheets, the education needs to focus on what the experiences at the museum mean to the kids.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education for show is required, it is also important for instructors and artists in charge of the programs to keep a balance.

Yujean Rhee —

As previously mentioned, feedbacks obtained in the course of the education are important. But it is really difficult to explain the feedback generated in the process of education to teachers or parents, who didn't participated in the program. Building a relationship with kids is not easy, either. It is very difficult to come into close relation with a lot of kids in groups within a limited time of 90 minutes. In particular, when the subjects of the course are related to their life, there exists a point where conflicts occur. The exhibition-related program **O! Superman**, whose subject was the 'logic of power', was an example. I'd like to know how the instructors who conducted education felt about it.

Mihyun Lee —

Since many artworks dealing with social problems are exhibited at the Art Center, we come across a point connected to our everyday life. For example, we organized an education program **O! Superman** in conjunction with an exhibition, one of whose artworks is related to the topic of school violence, an issue closely connected to the life of kids. Although we felt the educational necessity of this kind of issue, but there were a lot of difficulties in reality. We couldn'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perpetrating students and victimized students from school violence can be in the same class, and above all, we were worried about the wounds of the victims. For

this reason, this program was much more difficult for us to lead. Some teachers asked us to emphasize the positive aspects of an ideal friendship, rather than to talk about the problems occurring in the real world. Particularly, figuring out the circumstances and characteristics of many students within a short time was a really hard work. There were many difficulties because the education was offered under the circumstances without any previous information, with so many people of various age ranges, within the short time limit and with the same format.

Sohyun Ahn —

Concerning the content of **O! Superman**, these days, subtle bullying and invisible violence are more serious problems whereas visible violence among students was a problem in the past. There is even an art education program under the title of 'Healing the symbolic violence' to reduce this kind of subtle violence. So I asked the person in charge of the education program the reason for assigning this kind of program to art instructors. His answer to my question was that a quiet and subtle problem like invisible violence is hard to explain and persuade verbally. It is the moment that the role of education to make people recognize the current problems through artworks is more required than ever. For instance, when we deliver a message 'We are under surveillance' in spoken and written words, it is difficult to deliver an ambiguous and clandestine part of surveillance. In my perspective, art education has to deal with a subtle and delicate part that cannot be delivered only through the books such as subtle violence or invisible surveillance by society. It seems that teachers avoid complications even though things happening to the kids are very complicated problems. They always tend to ask for something simple. They want to stress the initiative and future-oriented aspects of Nam June Paik, whereas they don't want to know the critical and abstruse aspects. I think, however, a desirable direction of education is to specialize what we can do in regard to the roles of art education as discussed earlier, rather than to focus on what teachers want.

Mihyun Lee —

When we started a program in conjunction with the exhibition

실천하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질문에 답하고, 활동지에 생각을 적극적으로 적어 냈는가' 만으로 그날의 교육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활동지나 발표를 통해 표현하지 않았다 해도 미술관에서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를 헤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 식의 교육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 분들이나 작가 분들 역시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진 —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드백이 중요한데,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학교 선생님이나 학부모에게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피드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이들과 '관계 맺기' 역시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단체로 온 아이들과 주어진 90분 안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특히 강의의 주제가 아이들의 생활과 맞닿아 있을 경우에는 충돌하는 지점들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전시연계 프로그램이었던 <오! 슈퍼맨>의 주제였던 '힘의 논리'가 그러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미현 —

아트센터에는 사회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작품이 많이 전시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지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인 학교 폭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 다룰 수 있는 전시연계 교육 프로그램 <오! 슈퍼맨>을 기획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적 필요성을 분명히 느끼면서도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상처 받은 학생과 학교 폭력을 가한 학생이 한 학급 안에 공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피해 학생들의 상처가 걱정되었기 때문에 유독 더 힘든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이상적인 교우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해달라고 요청하시는 학교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특히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인원의 학생들이 처한 상황과 특성을 파악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전 정보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한정된 짧은 시간 안에, 똑같은 포맷으로 교육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안소현 —

<오! 슈퍼맨>의 내용과 관련하여 예전에는 학생들 간의 가시적인 폭력이 문제였으나 지금은 은근한 따돌림, 보이지 않는 폭력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미묘한 폭력을 줄이기 위해 '상징폭력 치유'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 관계자에게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굳이 예술 강사들에게 맡기는 이유가 있는지 물었더니, 보이지 않는 폭력처럼 은근하고 미묘한 문제를 말로 설명하고 설득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술작품을 통해 현실의 문제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감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나 글만으로 전달할 때는 보이지 않는 감시의 애매하고 은밀한 지점들은 전달하기 힘듭니다. 예술교육은 아이들 사이의 미묘한 폭력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의 감시와 같이 책만으로는 전달될 수 없는 미묘하고 섬세한 부분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상 매우 복잡한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들은 복잡한 일은 기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센터 교육에 있어서도 늘 단순한 것만 요청하십니다. 백남준선생님의 친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기를 바라시고, 사회비판적이거나 난해한 부분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하지만 백남준아트센터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교육방향은 결국 학교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앞서 이야기한 예술 교육의 역할과 관련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특화 시켜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현 —

2012년 전시연계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학교 선생님 한 분이 "미술관이라 그림 그릴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전시연계 프로그램에서는 진행 중이던 전시 《x-sound: 존케이지와 백남준 이후》와 관련하여 몸으로 표현하기, 일상생활에서 소리 찾기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어서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물론 그림 그리기나 만들기와 같은 가시적인 결과가 드러나는 활동을 원하는 선생님들이 계신 반면, 센터 프로그램만이 가진 특성 때문에 센터를 계속 찾는 분들 역시 계십니다. 한편,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면, 당연히 백남준을 빼고는 이야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백남준아트센터만의

in 2012, a school teacher said, “I thought students would draw a picture because it’s a museum.” In that program, activities such as expressing with the body and finding sounds in our daily life were included in connection with the exhibition *x-sound: John Cage, Nam June Paik and After* on display at that time. But he seemed confused because there was no visible direct output and the program was not about painting. While there are teachers expecting the activities producing visible results such as painting and craft, some others keep visiting the center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that its programs only have. Meanwhile, the education programs hosted by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can’t be discussed without Nam June Paik. Accordingly, it is desirable that Nam June Paik Art Center offers its own specialized programs in accordance with its own identity. According to a paper on the necessity of the museum education, as art subjects in today’s school curriculum are of less importance, art education needs to be supplemented outside of school and as a result, the roles of museum education become more significant. Unfortunately, it’s a reality.

Hee Jeong Park —

As to the discussion on the ‘outcome’ from the education program, I’d like to introduce an example. The program in conjunction with the works *Yellow Scream* by Beom Kim and *No* by Nadia Kaabi-Linke received obviously mixed feedbacks from school teachers. In the activity for the **Certain Scream**, students painted on a canvas while screaming. Teachers were very satisfied with this program because their students could bring the ‘canvas,’ which was the result of the program, back to school. On the other hand, most of the teachers were skeptical about the work *No*, a one and a half hour program, in which students move around, answering “No” in a perforated cloth. In this way, teachers tend to think highly of the concrete outcomes which are seen apparently.

Mihyun Lee —

As curator Sohyun Ahn said, one can feel a subtle part which cannot be explained verbally through the experience of an artwork. The program **No** was a good example. According to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No**, they

said they felt a lot in the process of the program whose main activities are given in groups even if there was no direct verbal explanation on it. But teachers who didn’t take part in the program didn’t pay much attention to what kind of experiences their students had through the activities or the process in the course of the program. Instead, they regretted that their students didn’t come up with a visible result.

Yujean Rhee —

In the same context, the reason why the center publishes an education program source book is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what kind of education is given in the center, especially focusing on the importance of the process in the education programs.

Then, we’ll move on to the individual education programs of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and have a discussion more in detail. Let’s talk about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s for each program offered by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Yujean Rhee —

With regard to the **Kumdarak Saturday Cultural Schools**, it is a support project. The fund from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is first given to the community culture and art support center and then is distributed to the institute like Nam June Paik Art Center. Since **Kumdarak Saturday Cultural Schools** started in 2012, its budget has been increasing until 2014. It was only an increase in quantity to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of art majors, but in reality, actual labor costs and planning costs are not calculated properly. I think it’s really a pity.

Mihyun Lee —

As I know, artist Jiyeon Kim has led education programs at other institutes as well as at the museums including the Art Center. Please let us know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you found out in the course of education.

Jiyeon Kim —

There were many restrictions on the planning cost or material cost when I taught at other institutes, but Nam June Paik Art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미술관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한 논문에서, 근래에 학교 교육과정에서 예술교과 비중이 낮아지면서 미술교육에 대해 학교 밖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이유에서 미술관 교육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라는 설명을 접하였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정 —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프로그램의 ‘결과물’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작년에 김범의 <노란 비명>과 나디아 카비-린케의 <아니오>와 연계된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 선생님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비명>의 경우, 아이들이 함께 칠한 캔버스에 비명을 지르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캔버스’라는 결과물이 있다는 점에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반면에 구멍을 뚫은 천에 들어간 아이들이 “아니오”라고 대답하면서 이동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던 한 시간 반이라는 시간에 대해 회의적이셨습니다. 이처럼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현 —

안소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로 설명될 수 없는 미묘한 부분을 작품 체험을 통해 느껴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오>가 좋은 예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이들은 비록 말을 통해 직접적인 설명이 이루어진 부분은 없었지만, 단체 행동을 주로 하는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는 프로그램 동안 이루어진 행위나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떤 체험을 했는가 보다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는 점에 대해 아쉬워하셨습니다.

이유진 —

같은 맥락에서 교육 프로그램 자료집을 만들려는 이유 역시 센터에서 어떤 식의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특히 교육 프로그램 프로세스의 중요성에 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백남준아트센터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전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준아트센터의 프로그램 별로 교육환경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진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기금이 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 등으로 전달된 후에 그것이 다시 백남준아트센터와 같은 기관으로 분배되는 방식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되었고, 2014년까지 예산이 늘었던 것이 사실이나, 그것은 예술 전공자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양적 팽창이었을 뿐, 실질적인 인건비나 기획비 산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미현 —

김지연 작가께서는 센터와 같은 미술관뿐 아니라 타 지역 기관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느끼신 교육환경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 부탁 드립니다.

김지연 —

타 기관에서 교육할 때에는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획비용이나 재료비의 제약이 많이 있는데, 백남준아트센터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교육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수업 이외의 것들, 예를 들면 심지어 아이들의 귀가 문제까지 강사에게 맡기고 방임의 자세를 취하는데 반해, 백남준아트센터에서는 강사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에 대한 차이도 느낄 수 있었는데, 센터에서 만난 아이들은 타 기관에서 만난 아이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이 달라서 그랬을 거라고 추측하긴 하지만, 이 곳에서 만난 학생들은 대체로 한 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아이들로부터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좀 더 얻고 싶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 바로 이루어지는 피드백이 아닌, 프로그램을 마치고 시간이 좀 흐른 뒤에 함께 했던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던가 하는 식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현 —

혹시 타 기관에서는 그런 자리를 가져보신적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지연 —

가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타 기관의 경우 보통

Center was a different case. While many institutes give the initiative to the instructors in running a program, even for the matters irrelevant to the course such as children’s returning home for example, Nam June Paik Art Center provides an environment in which instructors can concentrate on their courses only. It’s a big advantage, I believe. I felt a difference of participants. The kids I met at the center were different than those that I met at other institutes. It is probably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situations and environments,

but the students I met here usually seemed to have one color. Besides, I want to get some more feedback on my class from students. I’d prefer an opportunity to get together and talk about what we did during the course of the program after a while, to the feedbacks shared right after class.

Mihyun Lee —

Have you ever had that kind of opportunity in other institutes? If so, could you tell us about it?

Jiyeon Kim —

No, I haven’t. But in the case of other institutes, the period of program was quite long – usually ten weeks or so. So when the entire program was finished, we had a brief presentation time while eating snacks and talking to each other. As an instructor, I often become curious about what they think of me or my class.

Hee Jeong Park —

My daughter,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Sound Décollage** of the **Saturday Cultural Schools**, says she could break her stereotype that artists are scary people who work hysterically inside a closed space. Although learning something from the contents of the program offered by the center is important, the fact that ‘think differently’ became available through the new experiences at the museum is also worthwhile as itself.

Above all, the program **Sound Décollage**, which took place outside of the museum, is already meaningful. For kids living a busy life even after school as well, it could be a precious experience to go to the forest and hear its sounds. From a parent’s perspective, I liked the environment in which kids could participate in the program as if they ‘go to the

museum for fun’, not as an assignment to carry out.

Yujean Rhee —

The feedbacks from the kids upon completion of the **Saturday Cultural Schools** program **Be a NJP Docent!** were very special. While they showed their outcomes from the education program to each other and shared feedbacks, an additional education occurred in this process. What do you think of this?

Mihyun Lee —

Be a NJP Docent! was a program beyond the process in which kids select and investigate a work, write a script and deliver it to visitors. According to the kids’ feedbacks, one of the most impressive activities was a warming-up awakening all the senses with artist Kanghyun Ahn. In fact, many of them said physical activities they did in this program were so simple but the change of the view as well as the ‘speed’ in life helped them to make an observation. Participants in this program were students preparing for entering the art college and dreaming of becoming an artist. And they said this program provided them with an opportunity to think of what to do as an artist in the future.

Hee Jeong Park —

It appears to be important to stimulate their senses and soften their body and brain before the program starts.

Mihyun Lee —

But maybe, it might be the adults’ idea. Unexpectedly, kids seem to be already open-minded and excited enough about the fact that they take part in the program outside of school. Adults tend to judge that ‘Kids these days have to study all the time and may lack in sensitivity’ by their own standard.

Hee Jeong Park —

I think kids showed a strong concentration in spite of a long exhibition tour because artist Kanghyun Ahn started his class with a warm-up to help activate the senses of the kids. It is an effort to become close that counts in order to help kids to be more open-minded and participate in the program. In the program **Tell Me!** included in the **NJP Creative Summer**,

10주 정도에 걸쳐서 긴 호흡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모든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함께 간식을 먹으면서 이야기 하는 식의 간단한 결과발표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강사로서 아이들이 수업에 대해, 혹은 강사 자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박희정 —

토요문화학교 <소리 데콜라주>에 참여했던 제 딸은 예술가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히스테릭하게 작업하는 ‘무서운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 내용 자체로부터 무언가를 얻어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처럼 미술관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통한 ‘다르게 생각하기’가 이루어졌다는 것 역시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또한, 토요문화학교 <소리 데콜라주>의 경우 미술관 밖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숲으로 나가 숲의 소리를 들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방과 후에도 바쁜 요즘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미술관에 놀러 갔다 온다’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학부모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진 —

토요문화학교 <도전! NJP 도슨트>를 마치고 아이들이 준 피드백은 굉장히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받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결과물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공유할 때 그 안에서 부차적인 교육이 일어났던 좋은 예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미현 —

<도전! NJP 도슨트>는 아이들이 작품을 선택해서 공부하고, 스크립트를 쓰고,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짜인 프로세스를 벗어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피드백을 준 것은 안강현 작가와 함께 했던 몸풀기를 통해 감각을 열어주는 활동이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했던 신체활동은 너무도 단순한 것들이었지만 그로 인해 일어났던 시각의 변화나 생활 ‘속도’의 변화 등으로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참여학생들은 미술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훗날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훗날 작가가 되어 어떤 일을 해나가야 할지도 생각해보는

게기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박희정 —

확실히 프로그램 시작 전에 아이들의 감각을 깨우고 몸과 뇌를 좀 더 말랑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현 —

그런데 어쩌면 그건 어른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의외로 아이들은 학교에서 벗어난 공간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신이 나있고, 열려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공부만해서 감성이 부족할 것이다’는 그저 어른들의 잣대로 만들어 낸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희정 —

안강현 작가께서 워밍업을 통해 아이들의 감각을 열고 강의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랜 전시 투어에도 높은 집중력을 보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JP 크리에이티브 썸머 <말해줘!>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가 제약을 받았던 경험들을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하기 전에 강사 선생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까워지기’를 노력하셨고 그런 사전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활동 때문이었는지, 아이들은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과 굉장히 단시간에 스스럼없이 표현하고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평일 단체 수업에도 적용해보면 아이들과 소통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소현 —

앞서 김지연 작가께서 아이들이 모두 한 색깔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문화 아이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요즘은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집을 지어보라고 하면 다들 우유팩으로 같은 모양의 아파트를 만들고, 시장을 만들어보라고 하면 나선형 주차장을 가진 이마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획일화된 환경 속에 생활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잃어가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이미현 —

이미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 <글로벌 그루브>를 주제로 아이들에게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임을 느끼게 해줄

children had to express their experiences of constraints with the body. Before the activity, the instructor tried to make them ‘close’ to each other in various ways and thanks to these kinds of activities that increase intimacy, children were able to express and share their thoughts easily in an unfamiliar place with unfamiliar people in a very short time. In my opinion, putting this kind of effort into the weekday group courses would be helpful to a better communication with kids.

Sohyun Ahn —

Previously, artist Jiyeon Kim said all the kids were of ne color. In this context, I think it will be nice to organize a program for multicultural kids. These days, it is said that kids make the same shaped apartments with milk cartons when they are asked to build a house, and they make an e-mart including a spiral parking garage when asked to make a market. It’s sad that kids are losing diverse ideas while living in the standardized environment.

Mihyun Lee —

There were already some discussions about organizing an education program to make kids feel ‘Not wrong, but different’ under the topic of Nam June Paik’s work *Global Groove*. We wanted to plan a program aiming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of various cultures and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but we were faced with many realistic difficulties.

Yujean Rhee —

Through the **Saturday Cultural Schools**, I felt a lot of preparation might be necessary to hold a program with this kind of objective. There is a difference among the kids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but some of the kids from the community child center were so different that we worried a lot about how to adapt them to the program without falling out. Such part needs to be much more considered in preparing for the next programs.

Mihyun Lee —

I also felt that understanding of participants has to be first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communication’ that Nam June Paik highlighted, we’d like to run multicultural programs, progra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more, but there are many practical limitations.

Hee Jeong Park —

In the program for kids with disabilities, they showed a high concentration and an excellent ability of expression in writing, talking, asking questions, painting, and so on.

Mihyun Lee —

That’s right. The disabled kids we met were more honest in expression, while attending the program. For this reason, with the same program, its process and results are different when carried out with them.

Hee Jeong Park —

In the programs for disabled kids, various craft tools such as clay, wire as well as activity sheets are prepared in consideration of their physical conditions. So it appears that they express in more diverse ways and participate actively. I can feel that they enjoy the program.

Jiyeon Kim —

In the case of the programs for disabled and multicultural kids, it can be an idea to give them some time to become familiar with the program in the form of outreach educ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education. The large and elegant building of the Art Center and its environments can look like ‘a different world’ to them. In this regard, it might not be easy for them to cross the entry barrier. The contents that the Art Center has can be delivered to the outside in the form of an artmobile.

Mihyun Lee —

In effect, some of the national and public museums run an outreach program. There are, however, complex problems including the understaffing issues and budget. It is also practically difficult to increase familiarity by visiting only once or twice. Rather, a more desirable way is to help them to get accustomed to and familiar with the museum, which is a strange place to them, while running a program over a longer period of time.

Yujean Rhee —

It is probably a question of between quality and quantity. The kids brought to the museum, led by the teacher without any special objective on a one off basis are totally different from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voluntarily. From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자는 논의가 센터 내에서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소통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유진 —

그러한 취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을 이번에 토요문화학교를 진행하면서 느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 간에 개인차가 크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온 일부 아이들의 색깔이 너무 달라서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이 낙오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잘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는 이러한 부분이 더욱 많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현 —

저 역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무엇보다도 대상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백남준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소통’의 맥락에서 다문화 프로그램, 장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싶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박희정 —

장애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이 집중하고 표현하는 정도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느꼈습니다.

이미현 —

맞습니다. 우리가 만난 장애 아동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보다 솔직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다른 과정과 결과가 나오곤 합니다.

박희정 —

장애 아동 대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뿐 아니라 점토, 철사 등 다양한 만들기 도구들을 구비해 놓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더욱 다채롭게 표현하고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즐기다 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김지연 —

장애 아동이나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 초반에는 파견 교육의 형태로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트센터의 크고 세련된 건물이나 그 안의 환경이 아이들에게는 ‘다른 세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이들이 미술관 진입문턱을 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트센터가 가진 콘텐츠를 ‘이동 미술관’의 형태로 외부로 전달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합니다.

이미현 —

실제로 국공립 미술관 중에서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나 예산 등의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는 부분입니다. 한두 번 찾아가는 것만으로 아이들에게 친숙함을 주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도 합니다. 오히려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미술관이라는 낯선 공간에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유진 —

질과 양 사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인솔에 따라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일회적으로 미술관을 찾은 아이들과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전혀 다릅니다. 앞으로는 자발적인 의사를 가진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희정 —

제가 학부모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백남준에 대해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백남준아트센터인 만큼, 백남준을 배울 수 있는 고정적인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현 —

그런데 그 수요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피드백을 수용해서 <<부드러운 교란 - 백남준을 말하다>>전과 연계하여 백남준에 대해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오히려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신청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습니다.

권영경 —

토요문화학교에 오셔서 아이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학부모들이 참여할만한 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마련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진 —

토요문화학교 <그물 짓기> 프로그램의 경우 학부모와

now on, we'll need to make programs to promote continued participation of voluntary students.

Hee Jeong Park —

One of the most frequent questions I'm asked by parents is if there is a program to learn about Nam June Paik. Since it is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I hope it offers a regular program providing knowledge about Nam June Paik.

Mihyun Lee —

But it's difficult to meet the demand. We held a program about Nam June Paik in conjunction with the exhibition *Gentle Disturbance*, following such feedbacks, but we had only few applications received compared to other programs. Eventually, many people applied for other dynamic and active programs.

Youngkyung Kwon —

I think it'll be good to open an education program for parents who wait for their kids attending the **Saturday Cultural Schools** program.

Yujean Rhee —

In the case of **Making a Net** of the **Saturday Cultural Schools**, which is a family program with the kids accompanied by their parents, we received very positive feedbacks from the parents. They said it is already very positive to have a conversation that they didn't do at other times, while spinning and filling the space.

Hee Jeong Park —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Making a Net**, my kids seem to be very impressed to see their father, who sleeps in every Saturday morning, and often talk about that experience when their friends come over to our place, showing their work.

Mihyun Lee —

In this regard, family program means a lot in that it promotes a natural communication among family members and they come to hear each other's stories that they didn't know before in the meantime.

Hee Jeong Park —

Regarding the program **Tell Me!** belonging to the **NJP Creative**

Summer education program, kids were able to tell their stories and listen carefully to what other kids present because it was 'the story of us.' While talking about what I felt and experienced myself, they were able to share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n this respect, I found the **NJP Creative Summer** program very fun and got to look forward to seeing the same kids in the following week. I hope the education programs by Nam June Paik Art Center can deal with 'subtle' parts, as mentioned repeatedly, that exist in our society.

Mihyun Lee —

It seems that meeting artists means a lot to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NJP Salon** or the programs aiming at students. But participations in the artist workshop for those with a major in art have been decreasing for two consecutive years. In this two-week program, many of the participants participated in the first session but didn't attend the second session. We'll need to draw up a plan for its improvement. Eventually, it's a question of satisfaction. Art majors' expectations about artist workshop held at the museum might be very high. As far as I'm concerned, I also expected to make up a deficiency for myself when I came to take a course at the museum. The reason of generally low satisfaction about the programs for specialists might be similar.

Sohyun Ahn —

If so, why don't we change it to a very specialized program? We can deliver specialized contents only available at the museum.

Youngkyung Kwon —

Probably, opening an evening course that people can take after work will be a good idea.

Sohyun Ahn —

In the docent education program, all the participants had to evaluate the senior docents' docenting upon completion of the entire program. Through this process, one can observe his or her own way of speaking and attitudes objectively. I think it can also be applied to the youth docent program.

Mihyun Lee_

In the case of the youth docent program, participants receive a video of their docenting before the last week

함께 참여하는 가족 프로그램이었는데, 학부모들의 피드백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실을 엮으며 공간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일상에서 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희정 —

<그물 짓기>에 참여한 저희 아이들도 토요일 아침이면 늦게까지 잠만 자던 아빠가 미술관에서 실을 감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는지 아직도 그 때 만든 작품을 집에 놓고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그 날에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미현 —

이러한 점에서 가족 프로그램은 가족 간에 자연스러운 소통이 일어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몰랐던 이야기가 나온다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정 —

앞서 언급했던 크리에이티브 씬머 <말해줘!>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발표하고, 다른 학생들의 발표 내용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겪고 느낀 일을 이야기 했기에 그것을 통한 나눔과 소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크리에이티브 씬머 프로그램이 정말 재미있었고, 같은 아이들을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백남준아트센터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 속에 존재하는 '미묘한'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랍니다.

이미현 —

작가를 만난다는 것은 <NJP 살롱>이나 학생 대상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에게 정말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술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작가 워크숍은 2년 연속 낮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주 진행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주만 오고 두 번째 주는 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개선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만족도의 문제인 것 같은데,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작가 워크숍에 대한 미술 전공자들의 기대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저 역시, 학부시절에 강연을 듣기 위해 미술관을 찾을 때에는 스스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소현 —

그렇다면 정말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바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미술관에서만 배울 수 있는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경 —

퇴근 후에 들을 수 있도록 저녁시간 강의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소현 —

도슨트 교육 프로그램에서 모든 교육이 끝난 후에 선배 도슨트들이 하는 도슨팅을 듣고 평가해보는 과정이 있는데,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말투나 자세 등에 대해 객관적인 관찰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대상 도슨트 프로그램에도 이러한 부분을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현 —

청소년 도슨트 프로그램의 경우, 마지막 주 전에 각자의 도슨팅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내주는데, 정말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채영 —

대중 강사인 <NJP 살롱>에는 <브런치 강좌> 시절부터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다양한 강사진을 원하시는데,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대부분 센터 내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해주시곤 합니다. 주차마다 강의의 내용을 다르게 준비해주시기는 하지만 주제 면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 여유가 있다면 다양한 외부강사를 초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현 —

<NJP 살롱>은 어떤 식으로 강좌 주제를 잡는지, 진행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채영 —

주제는 진행 중인 전시와 연계하여 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30대 후반에서 50대 주부들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그분들의 관심사를 고려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10월에 수학여행으로 인해 학생 단체가 몰리는 바람에 도슨트 자원봉사 스케줄을 관리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불가피하게 하루에 3~4번씩 투어를 하신 도슨트 선생님들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and it was very effective.

Chaeyoung Lee —

Among the attendees of the public program **NJP Salon** are many people who have taken courses since the Center offered **NJP Brunch Art Lecture Series**. They usually want a wide range of instructors but most of the courses are taught by museum staff due to some problems such as budget. Every session is different in contents but not so much in subjects. If the budget is available, it would be nice to invite guest instructors from various fields.

Mihyun Lee —

I'd like to know how the topics of the courses are decided and what kind of difficulties you had while running the program **NJP Salon**.

Chaeyoung Lee —

We select the topics in relation to the exhibition in progress and take account of the interests of participants considering they are housewives aged from the late 30s to 50s. In particular, scheduling for the docent volunteer work was hard because of the groups of students on a field trip in October. Inevitably, some of the instructors had to give them a tour three or four times a day.

Sohyun Ahn —

Sometimes, the sounds from docent-led groups and those from the docent education program were mixed. It was also one of the difficulties. At the Louvre Museum, the education program in progress is indicated with a mark such as press line to be differentiated from regular docent-led tour groups. This kind of setting not only helps to facilitate the process of education, but also change participants' attitudes toward education by making them feel proud.

Hee Jeong Park —

We received many inquiries from parents who visited the museum when we distributed name tags for the participants in a summer vacation program.

Sohyun Ahn —

Yes, simple settings such as press line and name tags can

have a great influence. We might provide visitors with a small and light folding chair to carry around during the exhibition tour.

Hee Jeong Park —

As a docent volunteer at the center, education participants, other docent volunteers and visitors all should be considered when several docent tours take place at the same time.

Yujean Rhee —

NJP Salon, which is a public education program, can create a structure of virtuous cycle. While participants in the salon work as a cultural volunteer and involve their kids in the education program, a positive structure of virtuous cycle in which all the family members become enthusiastic users of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is formed.

Hee Jeong Park —

Among the adult education programs that I attended at several other institutes, NJP Docent Education Program was the best. In fact, I applied for this program from the expectation that I can hear deeper and more varied stories about the artworks, rather than for the purpose of becoming a docent.

Mihyun Lee —

As the participants in the **NJP Salon** like to meet artists, kids are also attracted by a course offered by artists. Meeting with artists is one of the biggest strengths that museum education has.

Youngkyung Kwon —

Meeting curators and listening to their detailed explanations about the artworks and exhibitions through the docent education are the merits of museum education as well.

Sohyun Ahn —

While teaching at the docent education program as well as the **NJP Salon**, I can see a clear difference between the attitudes of the participants attending these two programs. Participants in the **NJP Salon**, some of which even met Nam June Paik in person and have good background knowledge, are inclined to enjoy thoroughly. But they don't tend to show the enthusiasm more than a certain level because they basically want to be an enjoyer. On the other hand, participants in the docent program

안소현 —

단체 도슨트와 교육 프로그램 도슨트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소리가 섞이는 등의 어려움 역시 있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일반 단체 도슨트 투어와 구분하여 교육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프레스라인 등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는 표시를 해 놓곤 합니다. 이러한 장치는 교육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교육에 임하는 태도를 바꾸어주기도 합니다.

박희정 —

여름방학 프로그램 때도 아이들에게 참가자 명찰을 만들어 줬더니 그것을 보고 전시장을 찾은 학부모님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문의를 주셨습니다.

안소현 —

네, 프레스라인이나 명찰과 같은 사소한 장치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가볍고 작은 휴대용 의자를 들고 다니면서 전시 투어를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희정 —

센터에서 도슨트 자원봉사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 도슨트 투어가 겹치는 경우에는 교육 참가자, 타 도슨트 자원봉사자, 일반 관람객을 모두 배려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유진 —

<NJP 살롱>이라는 대중 강좌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살롱 수강자들이 문화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도 하고, 자신의 아이들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도 하면서 가족 구성원 전체가 백남준아트센터의 진정한 이용자가 되는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박희정 —

여러 기관에서 성인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들어봤는데 NJP 도슨트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좋았습니다. 사실 처음 신청을 했던 이유는 도슨트를 하겠다는 목적보다는 작품에 대해 좀 더 깊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서였습니다.

이미현 —

<NJP 살롱> 참가자들이 작가와의 만남을 좋아하듯이 아이들 역시 작가에게 수업을 듣는 것 자체에 큰 매력을

느낍니다. 작가와의 만남은 미술관 교육이 가진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권영경 —

도슨트 교육을 통해 큐레이터 선생님들을 만나고, 작품과 전시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 역시 미술관 교육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소현 —

도슨트 교육도 진행하고, <NJP 살롱>에서도 강의를 하다 보니, 그 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태도의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살롱 참가자들은 철저히 향유자의 자세를 취하는데, 그 중에는 백남준 선생님을 직접 만나셨을 정도로 많은 배경지식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향유자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적극성을 띠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도슨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많은 정보를 얻어가고자 하시는데 차이를 보입니다.

사실 한동안 도슨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선발과정부터 교육진행과정까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체계가 많이 잡혔습니다. 무엇보다도 활동하시는 도슨트 자원봉사자들끼리 자주 만남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유진 —

공감합니다. <도슨트 프로그램>과 <NJP 살롱>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도슨트는 전문적인 지식을 들고 그것을 다시 전달하는 매개자로서의 고민을 하는 반면, 살롱 참여자들은 입문자로서 보다 편안한 자세로 지식을 얻어 갑니다. 미술관에는 전시를 만들어가는 생산자와 그를 수용하는 향유자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매개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미술관에 개입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문화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이나 도슨트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권영경 —

아트센터 내에 고정적인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정 —

이번에 토요문화학교를 하면서 외부에서 오시는 작가선생님들이 교육을 시작하시기 전에 좀 더 명확한 기획의도를 갖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떤 활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are active and want to get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For a while, there were many difficulties in running the docent program from the selection to the educational course, but now it is much better organized. Above all, I think it is important for docent volunteers to have opportunities to see each other as often as possible.

Yujean Rhee —

I understand. There is a lot of difference between the docent program and the **NJP Salon**. Whereas docents contemplate as a mediator to get and deliver expert knowledge, participants in the salon acquire knowledge more comfortably as a novice. Since the producers who create an exhibition and the enjoyers who receive it are not the only two kinds of people that exist in the museum, for those who want to get involved in the museum more actively as a mediator, the cultural volunteer program or the docent education program will be a good choice.

Youngkyung Kwon —

I hope the Art Center opens a fixed program.

Hee Jeong Park —

With regard to the **Saturday Cultural Schools**, I hoped that the guest artist instructors would have a clearer objective before the start of education. Enough discussions with participants on what and how to do should take place in advance. I'd like them to spend more time preparing for the things required for taking charge of the education conducted within the boundary of museum.

Jiyeon Kim —

In today's world where the development of internet and a flood of information facilitate indirect experiences, one has much less opportunities of direct experiences. I hope the museum not only informs people of the techniques as well as the ways of thinking of the artists, but also can be a place for a direct experience. For instance, I can think of a program in which participants go to the forest and sleep, listening to the sound of night.

Yujean Rhee —

Last year, we had a program titled **Museum Camp** for two days and one night. As mentioned previously, in the case of

the experience program taking place outdoors, we need to pay close attention so that various problems including safety accidents don't arise. On the positive side, however, kids get to know how their body acts and responds in a wider space and to release their energy, while moving actively, doing activities and experiencing in a more spacious place outside of the museum.

Sohyun Ahn —

Education programs are supposed to obtain all kinds of feedbacks and complaints from people of all ages, from adults to kids. In running the education programs, I hope we reflect the opinions of children more than those of teachers or parents. It is important to follow our own principles to some extent out of convention as much as to accept and adjust to the feedbacks. Our major focus should be the opinions of those who receive the education.

Mihyun Lee —

I agree with you. The role of museum should be more than making up for what public education lacks. We only need to focus on realizing the 'House where Nam June Paik lives for a long time' as Nam June Paik said. If kids feel something from their new experiences and activities at the museum, it is already a good education. Particularly in the case of the groups of students, they are usually brought to the museum, led by someone. I want to give those kids a little motivation to visit the museum again someday through this education program, rather than to offer them a lot of information about the museum or Nam June Paik's art world. I hope kids can feel that museum is a place which is open to anybody through the education program.

Yujean Rhee —

In the same context, what is important is to wait for the pace of kids and trust their ability to accomplish by themselves. Museums should play a role of helping kids to realize that they are the master of their own life who can create something and that life and art are not far removed from each other, beyond exploring the artists and the artworks. Lastly, thank you all for your valuable opinions and various suggestions. We'll do our best to reflect what we discussed today in our future education programs..

사전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미술관이라는 제도권 내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데에 강의 전에 조금 더 시간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지연 —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가 넘쳐남에 따라 간접체험이 너무도 용이해진 삶을 사는 만큼 직접체험의 기회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미술관이 예술가의 테크닉이나 사고방식 등을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무엇이든 직접 체험해보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밤의 숲 소리를 들으며 잔다거나 하는 식의 프로그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유진 —

작년에 1박 2일로 <뮤지엄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야외로 나가서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안전사고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미술관 밖의 더 넓은 공간에서 크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몸이 보다 넓은 공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작용하는지 알아가고, 스스로의 에너지를 방출해보는 것은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소현 —

교육 프로그램은 성인부터 아이들, 모두에게 온갖 피드백과 컴플레인을 받기 마련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학교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 의견보다는 아이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드백을 수용하고 맞추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습적인 부분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초연한 자세로 소신을 밀고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은 실제 교육을 받는 대상자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현 —

공감합니다. 미술관 교육이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는 백남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미술관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활동하는 가운데 느끼는 것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단체의 경우, 아이들은 대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미술관을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백남준의 예술세계나 미술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보다도 그 교육 프로그램을 계기로

언젠가 미술관을 스스로 다시 찾을 수 있는 작은 관심의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느끼고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유진 —

같은 맥락에서 아이들의 속도를 기다려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을 믿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술관의 교육은 아이들이 예술작품이나 작가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넘어서, 삶과 예술이 사실은 그리 멀지 않다는 것과, 아이들 스스로가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각자의 삶의 주인임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 들려주신 다양한 이야기와 좋은 제안들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향후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nstructors Biographies

Jiyeon Kim has dealt with natural phenomena that clearly exist without shape and affect the humans, through field recordings, composition, singer-songwriting, audio-visual, etc. Her music has been introduced at Café Oto (London), Ausland (Berlin), Stazione di Topolo (Topolo), and so on. She presented a sound installation work *Grandmother’s Lounge – From the Other Side of Voices* at the Media Art Biennale *Media City Seoul 2014* held in the Seoul Museum of Art.

Taeyun Kim & Jihyun Yoon media artist duo presented a media performance *Hello, World!* which visualized the movement and flow of the data collected by the synthesizer that they made and the energy generated in this process at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Taeyun Kim & Jihyun Yoon throw a question of whether sharing all the information is a real communication in the present world where everyone has his or her own channel through the SNS.

Hak Mi Kim is an instructor for the art program based on the diversified aesthetic experience entitled **Make You Dance in Art** and the integral art program **Dancing Painting Playground** run by the ‘Able Art Incorporated Association.’ She is also a member of the ‘Art Free’, a contemporary art and performance art education program.

Haeju Kim is an independant curator. she worked as a researcher in the academic publications department at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and as an assistant curator at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She curated *The Decisive Moments – Space Sarang Contemporary Project*(2014), a space specific radio emission project *Frost Radio*(2014), *Memorial Park*(2013), *Theater of Sand*(2012), *The Whale, Time Diver*(2011), etc.

Hyewon Kim is currently studying at the painting department of Hongik University and her main fields of work are paintings and video art. She was an assistant instructor for the program **Suite 031** of the **2014 Kumdarak Saturday Cultural Schools** by Nam June Paik Art Center.

Heejin Kim, presently attending the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took part in the art program targeting the kindergartens of foreign schools in Korea held by the National Art Honor Society and the program **Be a NJP Docent!** of **2014 Kumdarak Saturday Cultural Schools** by Nam June Paik Art Center as an assistant instructor.

Seung Hoon Dong, a 25-year-old college student, is more interested in culture criticism than his major economics. He especially likes Walter Benjamin and Nam June Paik, who overthrew the discourse established by the connection of techniques and arts, and is working as a docent at Nam June Paik Art Center.

Sora Park majored in painting (Oriental painting) at Dongduk Women's University. She took part in **Make You Dance in Art**, a demonstration project of children's art education program and **Making a Net**, one of the programs offered in the **Saturday Cultural Schools** by Nam June Paik Art Center as an assistant instructor.

Jooyeon Park, majored in dance for her undergraduate degree at Kyung Hee University and currently doing her master at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 2013 and 2014, she participated in the **NJP Creative Summer** Program as an instructor.

Hee Jeong Park, an applied art major, has been working as an illustrator in the fields of advertisement, publication and children’s story as well as an art teacher. She took part in the ‘Fluxus research’ for the ‘Wonderful Art Project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COP)’ and is currently working at Nam June Paik Art Center for the exhibition guide and exhibition related programs as an educator.

In Sook Bae studied computer music and electronic music at Dongguk University in Korea as well as the Institute of Sonology of the Royal Conservatory of the Hague in the Netherlands. She has been participating in the activities of the sound performance group 'Upcycle Roundup' and the experimental music concert 'Howling'. She is also involved in a Dutch music institute STEIM and the Baengnyeongdo Peace Arts residency project.

강사소개

김지연 형태가 없지만 뚜렷이 존재하면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연 현상을 환경녹음, 작곡, 싱어송라이팅, 오디오/비주얼 등으로 다뤘었다. 그녀의 음악은 카페 오토(런던), 아우스란트(베를린), 스타지오네 디 토폴로(토폴로) 등에서 소개되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 2014》 참여작가로 <할머니 라운지-목소리 너머> 소리 설치작업을 선보였다.

김태윤&윤지현 미디어 아티스트 듀오로 작가들이 만든 데이터 신디사이저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이동과 흐름, 그리고 그 과정 중 발생하는 에너지를 시각화한 미디어 퍼포먼스 <헬로, 월드!>를 백남준아트센터에 선보였다. 김태윤 & 윤지현은 SNS를 통해 모두가 각자의 채널을 지니게 된 오늘날,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인지 질문한다.

김학미 다원화된 미적 체험을 기반한 미술 프로그램인 <미술 속에서 너를 춤 추게 해> 강사, ‘사단법인 에이블 아트센터’ 통합예술교실 <춤추는 그림 놀이터> 강사로 활동 중이다. 현재 현대미술과 퍼포먼스 미술교육 그룹 ‘Art Free’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김해주 독립 큐레이터로, 국립극단 학술출판 연구원과 백남준 아트센터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로 일하였다. 《결정적 순간들 - 공간사랑 컨템퍼러리 프로젝트》(2014), 장소 특정적인 라디오 송출 프로젝트 《프로스트 라디오(Frost Radio)》(2014), 《메모리얼 파크》(2013), 《모래극장》(2012), 《고래, 시간의 잠수자》(2011) 등을 기획하였다.

김혜원 홍익대학교 회화과에 재학 중이고 회화 및 영상 작업을 하고 있다. 2014 백남준아트센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강 <모음곡 031>의 보조강사로 참여하였다.

김희진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대학에 재학 중이며 국립 예술 아너 소사이어티에서 한국외국인학교 유치원 대상으로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2014 백남준아트센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3강 <도전! NJP 도슨트>에서 보조강사로 참여하였다.

동승훈 평범한 대학생이자 25살 청춘으로 본 전공인 경제학보다 문화비평학이라는 생소한 영역에 빠져있다.

특히 기술과 예술의 마주침을 통해 굳어진 담론을 전복했던 발터 벤야민과 백남준을 좋아하며, 이러한 관심이 이어져 현재는 백남준아트센터에서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다.

박소라 동덕여자대학교에서 회화(동양화)를 전공하였다. 아동미술교육 프로그램 시범 사업인 <미술 속에서 너를 춤 추게 해>와 백남준아트센터 토요문화학교 2강 <그물 짓기>에서 보조강사로 활동하였다.

박주연 경희대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현재 동대학 교육대학원 체육교육학과에 재학 중이다. 2013, 2014 NJP 크리에이티브 썸머에서 강사로 활동하였다.

박희정 응용미술학을 전공하고 미술교사와 광고, 출판, 동화의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였다. ‘불가사의한 예술 프로젝트(경기문화재단 COP)’의 ‘플럭서스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백남준아트센터 전시해설과 전시연계 프로그램 교육 강사로 활동 중이다.

배인숙 동국대학교와 헤이그 왕립음악원 소놀로지 코스에서 컴퓨터음악과 전자음악을 공부하였으며 실험시도 음악회 하울링과 사운드 퍼포먼스 그룹 업사이클 라운드업에서 활동하고 있다. 네덜란드 음악기관 스타임(STEIM)과 인천아트플랫폼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시 작가이다

손주영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회화, 설치, 영상 등을 병행하여 작업하고 있다. 백남준아트센터 토요문화학교 <매체는 매체다>와 <모음곡 031>, <굿모닝 미스터 백>, NJP 크리에이티브 썸머 <텍스트-토피아>의 강사로 참여했다.

손혜주 오티스 예술 디자인 대학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했고, 현재 홍익대학교 대학원 예술학과에서 공부 중이다. Everything But The Kitchen Sync, 0 프로세서널 도서전 등에 참여 작가로 활동하였고, 일러스트와 어린이 동화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과 경기도미술관 교육 강사로 활동 중이다.

안강현 어릴 적 안강현은 예술 작업이란 '자기 표현'이라고 배웠다. 조금 커서는 그것이 '열정적인 도피'라 여겼고,

Jooyoung Son majored in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and is studying in the department of fine arts at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is main areas of work include painting, installation and video art.

He participated in the **NJP Saturday Cultural Schools** programs including **The Medium is the Medium** and **Suite 031**, and the **NJP Creative Summer** program **Text-Topia** as an assistant instructor.

Hyejoo Son studied at Otis College of Art and Design with a major in illustration and currently attends the graduate school of Hongik University in the arts department. She has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s including Everything But The Kitchen Sync and O Professional Book Show and is working on illustration and children's book. Presently she works as an educator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nd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Kanghyun Ahn When little, she thought of art making as self-expression. Later she reckoned it as enthusiastic escape. As art school student she bet art could change the world, yet soon after suspected everything in art galleries was a lie. Whatever art means to her, Ahn still keeps collecting the sensations that result from the instantaneous reactions of her body to a given space and time that she is abruptly confronted with. Ahn looks at things that have disappeared or gone into hiding amongst ordinary life or history, and loves to take them out.

Sekwon Ahn is well-known for photographing landscapes of the city of Seoul, which is changing due to redevelopment. The exhibitions he has had include a group exhibition at ZKM Media Art Center(2013), a solo exhibition at Sungkok Art Museum, a solo exhibition at Insa Art Center(2006), etc. Sekwon Ahn shows the faces of time changing along with space by photographing one place from a fixed point with the same angle for many years.

Jaewoo Oh, showing interest in the relations between art and the members of society, has produced the projects that can be shared by a diversity of people such as *Collector’s Choice*, *Start! National Gymnastics* and *A Starry Night*. He explores the possibilities of art in society and is actively involved in the activities of art education.

Gang il Lee's main interest is audio and visual work utilizing technical elements such as electronic circuit, computer programming and so on. He gets inspiration from allowing and

finding unusual functions or inefficient methods. Although the subjects or conceptional motives of his work are not clear yet, he tries to search and keeps doing what he wants to do.

Boorok Lee has been working on the Warvata sticker project since 2005. In this project, he produces pictograms of 'Warvata', a compound word of war and Avatar, in stickers and distribute or mail them to people. Then these people put the stickers on the existing signs or images, take a picture of it and send it back to the artist.

Choonyoung Lee is presently a student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n the division of culture & tourism. She has worked as a member of 'Sookmyung Cultural Volunteer', as a student art manager for 2013 ASYAAF and as an educator for **2014 Gyeonggi Airshow**, and has run art education programs for students and senior groups. Currently she works for Kumdarak Culture School by Nam June Paik Art Center as an assistant instructor.

Sohee Cho finished a PhD course in plastic arts at University of Paris 1 Panthéon-Sorbonne. While working in France and Spain, she developed ‘a progressive type of work’ by accumulating the time that flows and produced diverse performances and videos on ‘weakness of object’ and ‘shaking.’ She has displayed her works in 10 solo exhibitions and a number of special exhibitions at home and abroad, and has participated in a variety of art projects and residency programs.

Minja Han took charge of the education and docent work in **Making a Net**, a Nam June Paik Art Center’s **Saturday Cultural Schools** program and in **A Picture Filled with a Book**, a NJP Creative Summer program. Currently, she is actively working as a docent at Nam June Paik Art Center. She also did docent work for various exhibitions including *Nam June Paik: Exhibition of Music*, Exhibition on *Dutch Architecture and Design* and *Tapas Exhibition: Spanish Design for Food* held at the cultural center of the Korea Foundation.

Hokyung Hwang, who majored in industrial art, has worked as a docent as well as an educator at the educational and cultural residency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ince 2007. Her main fields of interest include educational methodology for museum and art gallery and the roles and communication technique of docent as a storyteller of the exhibition.

미술학교에 다니면서는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거의) 확신하였다. 허나 오래지 않아 그는 전시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뻥'이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제대로 말하기 전부터 남들이 잘 못찾는 물건들을 찾아다 가져다주는가 하면, 입 안의 가느다란 생선가시를 골라내거나 영근 실타래를 푸는 것을 아주 잘 했다고 한다. 예술이 그에게 무엇이든 간에 안강현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열심히 잘 보려 한다. 생선가시를 골라내는 자세로..

안세권 재개발로 인해 변화하는 서울의 도시풍경을 렌즈에 담은 사진작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2013년 ZKM 미디어아트센터 단체전》, 《2011년 성곡미술관 개인전》, 《2006년 인사아트센터 개인전 》을 통해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안세권은 고정된 지점에서 동일한 각도로 하나의 장소를 수년 간 촬영한 사진들을 통해 장소와 함께 변화하는 시간의 얼굴을 보여준다.

오재우 예술과 사회 구성원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으며, <컬렉터의 선택>, <국민체조 시~작!>, <별이 빛나는 밤에> 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 기획하였다. 예술이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중의 하나의 방식으로 예술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강일 전자회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한 오디오/비주얼 작업을 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기능이나 비효율적인 방법을 허용하고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한 영감이 되곤 한다. 주제나 개념적인 목표는 아직 불분명하나 우선은 하고 싶은 것을 찾아 꾸준히 해 나가려고 한다.

이부록 2005년부터 전쟁과 아바타의 합성어인 '워바타(Warvata)' 픽토그램을 스티커로 제작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거나 우편으로 보낸 후, 기존의 기호나 이미지에 스티커를 붙인 뒤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는 스티커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춘영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과에 재학 중이다. '숙명문화봉사단' 단원, 《2013 아시아프》 학생 아트 매니저, 국립중앙박물관 청년 멘토, <2014 경기항공전> 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학생 단체 및 노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현재 백남준아트센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보조 강사로 활동 중이다.

조소희 파리 1대학에서 조형예술학 박사를 마쳤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활동하며 흐르는 시간을 축적하는 '진행형 작업형태'를 발전시키는 한편 '사물의 연약함', '흔들림'에 관한 다양한 퍼포먼스와 영상을 제작했다. 국내외의 10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기획전에서 작품을 선보였으며 다양한 예술프로젝트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한민자 백남준아트센터 토요문화학교 <그물 짓기>와 NJP크리에이티브 썸머 <책을 담은 그림> 프로그램에서 교육과 도슨트를 담당하였고, 현재 백남준아트센터 도슨트로 활발히 활동 중에 있다. 또한 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갤러리에서 《백남준:음악의 전시》, 《네덜란드 건축과 디자인전》, 《타파스 스페인 음식 디자인전》등 다수의 전시 도슨트를 하였다.

황호경 산업미술을 전공하고 2007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문화창작스튜디오과 전시 해설 및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물관, 미술관 교육의 방법론과 전시의 스토리텔러로서의 도슨트의 역할과 소통의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Nam June Paik Art Center
Education Programs
History

Year	Section	Period	Programs
2009	Public Program	Aug. 10(Mon) - Sep. 18(Fri)	NJP Creative Summer Robot Studio, TV Experiments, Art Park Project, Movie on the Terrace: SF Classics
2010	Public Program	Jul. 31(Sat) - Aug. 25(Wed)	NJP Creative Summer Attack Nam June Paik Art Center, ?! Exclamaquestion Mark, Sound Frolic
2011	Public Program	May. 19(Thu) - Jul. 21(Thu)	Session 1. NJP Brunch Art Lecture Series
	Public Program	Aug. 7(Sun), Aug. 27(Sat)	NJP Creative Summer The Lunar World of Nam June Paik: Avatar Games with Robot-456
	Public Program	Sep. 22(Thu) - Nov. 24(Thu)	Session 2. NJP Brunch Art Lecture Series
	Public Program	Oct. 18(Tue) - Sep. 20(Tue)	Education for Volunteers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Public Program	Nov. 16(Wed) - Nov. 30(Wed)	NJP Public Program Words Factory Manager
2012	Public Program	Jan. 3(Tue) - Feb. 3(Fri)	Winter Vacation Docenting Program for Teen's My Own Experimental TV
	School Program	Jan. 9(Mon) - Jan. 13(Fri)	Course for Teachers Art World of Nam June Paik
	School Program	Mar. 29(Thu)	Teacher Workshop <i>x_sound: John Cage, Nam June Paik and After</i>
	Public Program	Mar. 24(Sat) - June 2(Sat)	Education for Volunteers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Saturday Cultural Schools	Apr. 7(Sat) - Dec. 15(Sat)	Saturday Cultural Schools Lesson 1 My Dangerous Music Lesson 2 Sound Explorer's Walk Lesson 3 Be a NJP Docent! Lesson 4 Robot Theater Lesson 5 Rewind Project Lesson 6 TV Experiements
	Public Program	Apr. 26(Thu) - Jun. 28(Thu)	Session 3. NJP Brunch Art Lecture Series
	School Program	May 2(Wed) - Jun. 29(Fri)	Exhibition Related Program for School Groups <i>x_sound: John Cage, Nam June Paik and After</i>
	Public Program	Jul. 24(Tue) - Aug. 19(Sun)	NJP Creative Summer The Lunar World of Nam June Paik, Robot Opera
	School Program	Sep. 3(Mon) - Dec. 14(Fri)	Exhibition Related Program for School Groups The Lunar World of Nam June Paik
	School Program	Sep. 6(Fri)	Teacher Workshops <i>Nostalgia Is an Extended Feedback</i>
	Public Program	Sep. 22(Sat) - Nov. 24(Sat)	Education for Cultural Volunteers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Public Program	Oct. 18(Thu) - Nov. 22(Thu)	Session 4. NJP Brunch Art Lecture Series
Public Program	Nov. 10(Sat) - Dec. 08(Sat)	Gyeonggi Museum Park Creative Workshop 1 Flying OO	

백남준아트센터
교육 프로그램
연혁

연도	구분	기간	프로그램 명
2009	대중교육	08.10(월) ~ 09.18(금)	NJP 크리에이티브 썸머 <로봇 스튜디오>, <TV 실험실>, <뒷동산 아트 프로젝트>, <누구나 테라스 극장: 고전 SF>
2010	대중교육	07.31(토) ~ 08.25(수)	NJP 크리에이티브 썸머 <백남준아트센터를 습격하라!>, <?! 물김표>, <소리놀이>
2011	대중교육	05.19(목) ~ 07.21(화)	1기 브런치 예술강좌
	대중교육	08.07(일)~ 08.27(토)	NJP 크리에이티브 썸머 <달나라 백남준-로봇 K-456과 함께 하는 아바타 놀이>
	대중교육	09.22(목) ~ 11.24(목)	2기 브런치 예술강좌
	대중교육	10.18(화) ~ 12.20(화)	하반기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대중교육	11.16(수) ~ 11.30(수)	백남준아트센터 퍼블릭 프로그램 <날말공장 공장장>
2012	대중교육	01.03(화) ~ 02.03(금)	겨울방학 청소년 특별 도슨팅 프로그램 <나의 실험 TV>
	학교연계	01.09(월) ~ 01.13(금)	교원연수: 백남준의 예술세계
	학교연계	03.29(목)	교사 초청 워크숍: 《x_sound: 존 케이지와 백남준 이후》 전시연계
	대중교육	03.24(토) ~ 6.2(토)	상반기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토요문화학교	04.07(토) ~ 12.15(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강 나의 위험한 음악> <2강 소리탐험가들의 산책> <3강 도전! NJP 도슨트> <4강 로봇극장> <5강 되감기프로젝트> <6강 TV 실험실>
	대중교육	04.26(목) ~ 06.28(목)	3기 브런치 예술강좌
	학교연계	05.02(수) ~ 06.29(금)	학생단체 전시연계 교육 프로그램 《x_sound: 존 케이지와 백남준 이후》 전시연계
	대중교육	07.24(화) ~ 08.19(일)	NJP 크리에이티브 썸머 <달나라 백남준: 나의 정원 만들기>, <로봇 오페라>
	학교연계	09.03(월) ~ 12.15(토)	학생단체 전시연계 교육 프로그램 <달나라 백남준>
	학교연계	09.06(금)	교사 초청 워크숍: 《노스텔지어는피드백의 제곱》 전시 연계
	대중교육	09.22(토) ~ 11.24(토)	하반기 문화자원봉사자 교육
	대중교육	10.18(목) ~ 11.22(목)	4기 브런치 예술강좌
대중교육	11.10(토) ~ 12.08(토)	경기뮤지엄파크 창작 워크숍 1: 하늘을 나는 OO	

2013	Public Program	Jan. 2(Wed) - Jan. 18(Fri)	Winter Vacation Program Flying 00
	Public Program	Jan. 12(Sat) - Jan. 26(Sat)	Gyeonggi Museum Park Creative Workshop 2 Making a Mini LED Light Organ
	School Program	Mar. 12(Tue) - Jun. 14(Fri)	Exhibition Related Program for School Groups No, Certain Scream
	School Program	Mar. 20(Wed)	Teacher Workshop <i>Gentle Disturbance: Talking about Paik, Tireless Refrain</i>
	Public Program	Mar. 23(Sat) - Jun. 1(Sat)	Education for Cultural Volunteers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Saturday	Apr. 6(Sat) - Jun. 1(Sat)	Saturday Cultural Shoos
	Cultural Schools		Lesson 1 Rewind Project Lesson 2 TV Experiments Lesson3 Be a NJP Docent! Lesson 4 My Dangerous Music Lesson 5 The Medium Is The Medium
	Public Program	Apr. 11(Thu) - May. 23(Thu)	Session 5. Brunch Art Lecture Series
	Public Program	May. 18(Sat) - Sep. 29(Sun)	Mumeum Camp 10 Scores for 20 People
	Public Program	Jul. 23(Tue) - Aug. 16(Fri)	NJP Creative Summer Card LoLo, T Dictionary, Irrational Drawing, Physical Play Workshop
	School Program	Sep. 02(Mon) - Dec. 13(Fri)	Exhibition Related Program for School Groups The Lunar World of Nam June Paik, Fluxus Game, Play It Again
	School Program	Sep. 04(Wed)	Teacher Workshop <i>Learning Machine</i>
	Public Program	Sep. 17(Tue) - Nov. 28(Thu)	Session 6. Brunch Art Lecture Series
	Public Program	Sep. 28(Sat) - Dec. 07(Sat)	Education for Cultural Volunteers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2014	Shool Program	Jan. 02(Thu) - Jul. 11(Fri)	The First Half of 2014 Education Program for Visitors with Disabilities Making My Own Experimental TV
	Public Program	Jan. 02(Thu) - Jan. 24(Fri)	Winter Vacation Docneting Program for Kids The Lunar World of Nam June Paik
	Saturday	Mar. 15(Sat) - Nov. 29(Sat)	Saturday Cultural Shoos
	Cultural Schools		Lesson 1 Suite 031 Lesson 2 Making a Net Lesson 3 Be a NJP Docent! Lesson 4 Sound Décollage - Forest Recoated with Sound Lesson 5 Good Morning Mr.Paik
	School Program	Mar. 25(Tue)	Teacher Workshop <i>From the Horse to Christo, Variations of the Moon</i>
	School Program	Apr. 7(Mon) - Jul. 11(Fri)	Exhibition Related Program for School Groups Make My Own Rosetta Stone Drawing, Shadow Play
	Public Program	Apr. 17(Thu) - May. 29(Thu)	Art Lecture Series: NJP Salon Art and Time
	Public Program	May. 10(Sat) - May. 24(Sat)	Education for Volunteers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Public Program	Jul. 17(Thu) - Agu. 14(Thu)	NJP Creative Summer Tell Me!, Text-topia, Conversing with Pictograms, A Picture Filled with a Book
	School Program	Sep. 02(Tue)	Teacher Workshop <i>Good Morning Mr. Orwell 2014</i>
	School Program	Sep. 11(Thu) - Nov. 28(Fri)	Exhibition Related Program for School Groups Someone Who Predicts the Future, O! Superman
	School Program	Sep. 11(Thu) - Nov. 28(Fri)	The Second Half of 2014 Education Program for Visitors with Disabilities O! Superman
	Public Program	Oct. 16(Thu) - Nov. 20(Thu)	Art Lecture Series: NJP Salon Mass Media and Contemporary Art
	School Program	Oct. 17(Fri), Nov. 14(Fri)	Career Exploration Program for Teen What Curators and Museum Workers Do?
	Public Program	Oct. 18(Sat) - Dec. 13(Sat)	Education for Cutral Volunteers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2013	대중교육	01.02(수) ~ 01.18(금)	겨울방학 프로그램 <하늘을 나는 00>
	대중교육	01.12(토) ~ 01.26(토)	경기뮤지엄파크 창작 워크숍 2: LED 미니오르간 만들기
	학교연계	03.12(화) ~ 06.14(금)	학생단체 전시연계 교육 프로그램 <아니오>, <어떤 비명>
	학교연계	03.20(수)	교사 초청 워크숍 《부드러운 교란: 백남준을 말하다》, 《끈질긴 후렴》 전시 연계
	대중교육	03.23(토) ~ 06.01(토)	상반기 문화자원봉사자 교육
	토요문화학교	04.06(토) ~ 11.23(토)	토요문화학교 <1강 되감기프로젝트 > <2강 TV 실험실> <3강 도전! NJP 도슨트> <4강 나의 위험한 음악> <5강 매체는 매체다>
	대중교육	04.11(목) ~ 05.23(목)	5기 브런치 예술강좌
	대중교육	05.18(토) ~ 9.29(일)	뮤지엄 캠프 <20명을 위한 10개의 스키퍼>
	대중교육	07.23(화) ~ 08.16(금)	NJP 크리에이티브 썸머 <카드 로로>, <T 사전>, <부조리한 드로잉>, <몸놀이 워크숍>
	학교연계	09.02(월) ~ 12.13(금)	학생단체 전시연계 교육 프로그램 <달나라 백남준>, <플럭서스 게임>, <플레이 잇 어게인>
	학교연계	09.04(수)	교사 초청 워크숍 《러닝머신》 전시 연계
	대중교육	09.17(화) ~ 11.28(목)	6기 브런치 예술강좌
	대중교육	09.28(토) ~ 12.07(토)	하반기 문화자원봉사자 교육
2014	학교연계	01.02(목) ~ 07.11(금)	상반기 장애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나의 실험 TV> 만들기
	대중교육	01.02(목) ~ 01.24(금)	겨울방학 어린이 특별 도슨팅 프로그램 <달나라 백남준>
	토요문화학교	03.15(토) ~ 11.29(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강 모음곡 031> <2강 그물 짓기> <3강 도전! NJP 도슨트> <4강 소리 데콜라주 - 소리로 덧칠한 숲> <5강 굿모닝 미스터 백>
	학교연계	03.25(화)	교사 초청 워크숍 《말에서 크리스토포카지》, 《달의 변주곡》 전시 연계
	학교연계	04.07(월) ~ 07.11(금)	전시연계 학생단체 프로그램 <말하는 드로잉>, <그림자 놀이>
	대중교육	04.17(목) ~ 05.29(목)	문화예술강좌: NJP 살롱 <예술과 시간>
	대중교육	05.10(토) ~ 05.24(토)	상반기 자원봉사자 교육
	대중교육	07.17(목) ~ 08.14(목)	NJP 크리에이티브 썸머 <말해줘!>, <텍스트-토피아>, <픽토그램으로 말 걸기>, <책을 담은 그림>
	학교연계	09.02(화)	교사 초청 워크숍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 연계
	학교연계	09.11(목) ~ 11.28(금)	전시연계 학생단체 프로그램 <미래를 예견하는 자>, <오! 슈퍼맨>
	학교연계	09.11(목) ~ 11.28(금)	하반기 장애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오! 슈퍼맨>
	대중교육	10.16(목) ~ 11.20(목)	문화예술강좌: NJP 살롱 <매스미디어와 현대미술>
	학교연계	10.17(금), 11.14(금)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 <미술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대중교육	10.18(토) ~ 12.13(토)	하반기 문화자원봉사자 교육

2014 백남준아트센터 교육 프로그램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학교

기획	이유진
편집인	박만우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발행인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
진행	이미현, 윤지영, 이춘영, 김보라
디자인	김은형
인쇄	인쇄나라
번역	우형주
녹취	이춘영
촬영	박노언, 백남준아트센터

발행처 백남준아트센터
 발행일 2014.12.30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로 10 (446-835)

Tel 031.201.8571-2
 Fax 031.201.8530
 E-mail info@njpartcenter.kr
 www.njpartcenter.kr

2014 Nam June Paik Art Center Education Programs
 School for the Paperless Society

Editor	Yujean Rhee
Executive Editor	Manu Park (Director, Nam June Paik Art Center)
Publisher	Chang-Hee Cho (President,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Coordinator	Mihyun Lee, Jiyoung Yoon, Choonyoung Lee, Bora Kim
Design	Eunhyeong Kim
Printing	Printcafe
Translation	Hyungju Woo
Transcript	Choonyoung Lee
Photograph	No-eon Park, Nam June Paik Art Center

Published by Nam June Paik Art Center
 Published on 30 December, 2014
 ISBN 978-89-97128-17-4(93600)

Nam June Paik Art Center
 10 Paiknamjune-ro Sanggal-dong,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446-906, Korea

Tel +82 31.201.8571-2
 Fax +82 31.201.8530
 E-mail info@njpartcenter.kr
 www.njpartcenter.kr

이 책의 저작권은 백남준아트센터와 저자들에게 있습니다.
 이 도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4037827)

© 2014 Nam June Paik Art Center, instructors and authors. All rights reserved.



| ?-? = ∞ |
NAM JUNE PAIK ART CENTER
백남준아트센터

비매품

